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北中時局의 推移

一

北中에서 自治政權이 出現하게된것은 이미 決定的事實이되고잇다。남은問題는 南京政府가 이에對하야 엇더한 態度를 取할것인가 또는 中國問題에 對하야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잇는 英米가 이에 對하야 엇더한 程度까지 容喙할것인가하는 點이다。勿論이두가지가 어느것이나 北中政權의 出現에 對한 制動機가 될수잇다는 根據는 現在狀勢에서 發見할수 업지마는 그것이 北中新政權의 形式內容에 對하야 어느 程度까지 制約을 주는 客觀的 條件이 된다는 것을 否定할수는 업다。무엇보담도 國民政府가 그것을 日本側에서 過般 中國에 對하야 提示한 三原則 即一、滿洲國承認 二、北中赤化共同防衛 三、經濟積極的提携中 第一項의 原則을 承認하는것은 躊躇한다할지라도 二、三兩項의 赤化共同防衛 經濟提携의 具現으로서 北中新政權을 承認한다면 北中新政權은 赤化共同防衛委員會를中心으로한 親日的 이나마 形式上으로 國民政府와 連繫를가진 地方自治政權의 樣態를가질것이오 그러치안흔時에는 形式까지도 完全히 獨立된 組織이되리라는것은 斷定할수잇다。

二

國民政府가 北中에對하야 取할方針은 結局 國府가 日本에 對한 外交方針을 最近의蔣汪合作그대로의態度를 維持하느냐안느냐하는데 달녓다할것이다 從來 汪精衛氏에 依하야 代辯된 어느程度까지의 親日的인 政策을 그대로 踏襲한다면 結局 現在狀態로는 實質은 엇더케되엿든지간에 爲先은 눈감고 新政權을 形式上으로 認定하야 北中問題로 因한 日本과 衝突을 回避할것이오 그러치안흐면、亦是從來 滿洲問題를 他力으로써 解決하려든것과 한가지로 이것을 中國의內政干與問題라고하야 九個國 條約國의 注意를喚起한다든지 하는態度를 取할것이 像想되지마는、그러한 方策이 何等의效果가업슬것을 모를理가업는 中國으로서는 結局前者의길을 取할수밧게업슬듯한것이 今日까지 五全大會에表現된 對日方針 其他로서 推測되는바이다。

三

有吉大使의 今回 南京訪問에 잇서 蔣介石氏以下 國府要人과의 會見結果가 果然 엇더할것인가 하는點은 明確히 豫想할수는업지마는 엇더튼 그것이 現在事態를 實質的으로 轉換하는데 크다란 效果를 가저오리라는 期待는 가질수업다 할것이다。從來에도 反覆한바와가티 蔣介石氏의 對日政策은 露骨的으로 排日이라고도 아니하고 親日이라고도 아니하고 우물주물 直接交涉을 回避하면서 必要에따러서는 現狀維持政策으로 數次 親日的이란 제스추어를 取하엿슬뿐이오、默默한中에 이르바 一面交涉 一面抵抗의 二重政策을 取하여온것이다。그럼으로 現在 英國의 支援으로 幣制改革을斷行하고、內政에잇서서 全國黨同志의 團結을 企圖하고잇는 此際 特別히 從來以上의 親日的態度를 劃期的으로 表示하리라고는 믿을수가업고 設使 그런 제스추어를 取한다시라도、그것을 眞心에서 發露된것으로 取하기에는 過去의 그의態度가 證左한다。이런點으로볼때 北中問題는 日中關係에 [illegible]

蔣氏暗躍으로 北中自治實現困難
韓、商兩巨頭 相當히 軟化
『新情勢』俄然逆轉!

【北平二十日發電通至急報】南京의 有吉大使와의 外交交涉開始를 理由로한 蔣介石氏의 分解策이 韓復榘、商震兩氏를 相當히 軟化케한모양으로 五省三市에 亘한 高度의 自治制度實施는 突然 困難한 情勢를 展開하게되엿다 그러나 北中 共同赤化防衛와 現銀集中令에 反對하는 北中民衆의 要望은 到底히 蔣介石氏의 彌縫策으로서는 滿足시킬수 업스므로 境遇에 依해서는 宋哲元一人이 第二十九軍의 兵力을 基礎로 河北、察哈爾兩省에 高度의 自治政權을 樹立하게될는지도 모름으로 五省三市는 河北、察哈爾兩省及 北平 天津의 二省二市에 縮少되어 도로혀 內容의 强化를 보게될形勢이다

【北平二十日發電通至急報】蔣介石氏는 二十日 宋哲元氏、秦德純氏等要人에게 對하야『北平自治問題에 關하야 有吉大使와 外交交涉을 開始하엿다 自治委員會設置에 對하야 中央은 考慮中이라는 電報로서 巧妙한 分解運動을 開始하엿다

英國은 傍觀主義 米國은 對日抗議?
北中新情勢와 英米態度

【倫敦十九日發聯合】英國政府는 北中新情勢에 深甚한 關心을 가지고잇스나 刻下의 國際情勢에서는 滿洲事變當時와 가튼 固執不通의 態度를 取하지안코 北中自治運動에 對해서는 終始傍觀政策을 取할 意向이라고 解釋되다 英國政府當局은 以上의 方針을 示唆하야 十九日 午後 非公式으로 如左히 述하엿다

一、北中新情勢에 對해서는 英國政府로서도 深甚한 念慮를 禁할수업다 北中의 離脫運動의 背後에 日本이 活動하고잇는것은 明瞭하나 刻下의 諸情勢에잇서서 效果的으로 日本政府에 抗議를 提出할수업는 實情에잇서서 英國政府로서는 거의 束手無策이다

一、事情如何에 不拘코 滿洲 乃至 新嘉坡가 脅威될 境遇에는 英國政府에서도 適當한 介入對策을 講究하지안흐면 안될터이나 그러치안는限 何等實行을 期待할수업는 行動을 取하지는 안는다

一、現地의 報告에 依하면 上海의 情勢는 그後 緩和되엿다고하며 日本政府도 또 何等行動을 取하지안켓다는 言明을 確言하엿스므로 英國政府로서는 暫時 情勢의 推移를 靜觀할밧게업다

【華盛頓十九日發聯合】필립스國務次官은 十九日午後 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北中의 新情勢에 言及하야 米政府로서는 事態의 推移를 注視하나 北中에 關한 九個國條約을 援用하야 日本政府에 抗議를 提示할 意圖는업다는旨를 確言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린데大使와의 會見에잇서서는 特히 重要한交涉은 全然업섯다 大使도 何等正式提案을 示唆하지안헛다 北中情勢에對하여는 駐中大使館과 領事館等에서 浩瀚한 報告가 들려오나 新聞報道와 그리 틀리지안는다 어느 報告를 보드라도 新情勢에 對하야 在留邦人의 生命財產이 危險에瀕할 形跡은 업다 米國政府에서는 何等態度를 取할 必要를 認定하지 안는다 米國政府에서는 現在 九個國條約을 援用할 計劃은 全然업다 北平駐劄大使館을 移轉할생각은 全然업다 但 米國政府는 北中의 新情勢를 重大視하고 情勢의 如何에 依하여는 外交上機宜의 處置를 取할 意向이라고 解釋된다 當該地方은 米國駐屯軍 以外 一千의 米國人이 在留하야잇고 商業上 權益도 廣範圍에 亘하여잇다 따라 米國政府로서는 情勢의 推移如何에 甚大한關心을 가지고잇스나 當局의意向을 要約하면 左와如하다

一、北中의 日本政府의 工作은 要컨댄 中國의本土에 自國의制御를 確立하려하는 傳統的政策의 새로운 展開에 不外하는것이다 一九三四年四月 日本外務省의 代辯者가 右政策을 闡明하엿슬際 米國政府에서는 嚴重抗議를 提出하야 反對를 表明하엿다

以上當局의意向을 反映하야 米國政府에서 近近 日本政府에 正式으로 提議하야 一九三四年四月에 闡明한 方針을 再確認하든가 又는 九個國條約을 援用하야 中國의 領土的安全을 保障할 機宜의處置를 取하지안흘가하는 觀測이 有力化하게되엿다

獨政府 武器輸出制限令

【伯林十九日發聯合】獨逸政府는 十五日附로서 武器輸出制限令을 公佈하엿다 右는 狩獵用의 銃을 除한 左記武器其一切의 輸出에 對해서는 政府의 許可를 要한다는 旨를 規定한것이다 銃器 彈藥 탕크 裝甲列車 軍艦 飛行機 其他

全中國各省에 反蔣獨立氣運激化
◇北中自治에 刺戟되야

【天津二十日發聯合】北中新政權의 樹立은 全中에 非常한 衝動을 與하야 中國諸省 特히 福建兩廣四川各省에 亘하야 反蔣獨立의 氣運이 激化하고잇다 即 福建省에서는 福建西南派 胡漢民派 張貞等을 中心으로 閩人自治主義에 依하야 今月十日 宣言을 發表하는同時에 實行運動에 着手하엿는데 結局 福建獨立은 時期問題라고한다 또 四川省에서는 四川人治川運動이 再燃하야 劉湘、楊森、劉文輝等四川軍閥이 團結하야 中央의 支配로부터 離脫하려고하야 同省에 駐屯中인 中央軍과 四川軍과의 關係는 자못 險惡해젓다 湖北、湖南、陝西各省及 舊東北軍 關係者의 密使가 續續 北平、天津에 到着하야 北中各將領과 密接한 聯絡을 保持하고잇는 模樣이다

蔣介石氏의 巧妙戰術
表面으로承認코 裏面은離間工作

【天津二十日發聯合】北中防共自治委員會가 成立되려하매 蔣介石氏는 宣言發表에 앞서 機先을 制하야 此를 承認하고 北中의 切迫된 空氣를 緩和하는 同時에 委員會成立後에도 이와 政治的關係를 保持하야 面目을 保持하는同時에 今後 政治工作의 緊張을 緩和식히려하는 極히 巧妙한 策戰으로나오는 一方 蔣介石氏는 宋哲元 商震氏等 實力者의 分裂抗爭을 策하고잇다는바 그 推移는 注目된다

米軍縮全權代表團 任命發表
國務次官까지出動

【華盛頓十九日發電通】루스벨트米大統領은 十二月倫敦海軍軍縮會議에 特派할 米國全權代表團의任命을 十九日 左와如히發表하엿다

首席全權 노만데비스(無任所大使)
全權 윌리암스탄들리(海軍作戰部長)
全權 윌리암필립스(國務次官)

그리고 필립스次官의 任命은 在英代表部와 本國政府와의間의 連絡에 萬全을 期할 目的下에 特히 追加된것인데 會議에는 데비스 스탠들레兩全權과 行動을가티하야 列國의 主張及 그 空氣를 熟知한後 適當한 時期(아마크리스머스直前頃)에 一段歸國하야 大統領 海軍省 國務省에 微細에 亘한 實情을報告하고 그以後의 在英代表部의 行動에 細心指針을 與하야 今回의軍縮會議成否의 關鍵이 될 루즈벨트大統領의 裁斷을시른 最終訓令의 調整에 參劃하야 會議의運命을 決定하는 重要使命을帶하고잇다 確聞하건대 當地軍縮通의 解釋에 依하면 데비스全權은 近年에 行한諸軍縮會議의 거이全部에 列席하야 獨自의 見解를 主張하야 列國 代表를괴롭게한 米國有數의 軍縮通外交官이며 이에 配定될 스탠들레提督은 海軍主義의 强化라고할만한 强硬意見을 主唱한 人物로 이미昨冬日英米倫敦豫備會商에서 手腕을 發揮한이로 이兩巨頭를 再次起用한 點으로보드라도 米國政府의 意向도 大略想察하기 容易하다 同時에 連絡係로 필립스次官을加한데今回의 一派의 妙味를加味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의 深奧한 用意가 窺視되는바 會議의推移는極히 妙味로써 觀測되다

라바오島植地權
法律規定嚴守
케손大統領이 言明

【마닐라十九日發電通】比律賓新政權의 實施에 伴하야 라바오島의 日本人植地權問題의 處理如何는 新政府와 日本과의 親交關係를 左右하는것이라고 注目되고잇던바 新大統領케손氏는 右問題에 關하야 十九日 如左히 言明하엿다

라바오島는 法律의 規定한그대로를 嚴守할 方針이다 萬若 現行法이 重大한 不公正을 齎來하는 事實이 잇다면 法律을 修正하고저 立法院에 諮問하는것을 不惜하나 只今同問題에 關하야 詳細히 意見을 述할 必要는업다

本報空中輸送試驗飛行
第二次로 湖南及關北에

本社가 新築落成等 三大慶事를 機會로 十五大事業을 發表할때에 新聞紙의 空中輸送試驗飛行을 實施할것을 公約하고 지난十月 大邱、平壤、新義州等 嶺南、關西의 三大都市및 그 隣接都市에 本報를 空輸하야 當日 夕刊을 當日 午後 京城市內에서 보는 同時刻에 該地方讀者로 하야금 보게하야 多大한 衝動을 이르킨것은 讀者의 기피 記憶하는바다。本社는 이에 남어지 코ー스를 단숨에 實行코저 下記 日時로 湖南의 要地 裡里、榮山浦와 關北의 中心 咸興에 本紙를 空輸하야 當地及 그 隣接地인 全州、群山、江景、金堤、新泰仁、井邑、長城、木浦、羅州 및 興南、北靑、興上、新上、永興、元山 等地의 讀者에게 最新뉴쓰를 보내어 報道機關으로서의 使命을 다하랴한다。本社의 이 第二次空輸計畫은 第一次의 그것과 아울러 우리 新聞史上에 劃時期的 事實이될것을 自任하거니와 滿天下讀者께서 本社의 微衷을 諒解하신다면 萬幸으로 여기는바이다

操縱士 一等飛行士 二等航空士 愼鏞頊
使用機 살무송 二A二型 本社機

日程

十一月廿二日 午後一時 京城發
同 午後二時廿分 裡里着
同 午後三時 同所發
同 午後四時廿分 榮山浦着
十一月廿三日 午前九時 同所發
同 正午 京城着
十一月廿五日 午後一時 京城發
同 午後三時卅分 咸興着
十一月廿六日 午前九時 同所發
同 午前十一時半 京城着

朝鮮日報社

聖上陛下 今日御還幸

【東京電話聯合】御旗를 멀리 南九州에 進하옵시사 親히 陸軍特別大演習을 御統裁하옵시고 御親閱하야 民情을 御親察하옵신 天皇陛下께옵서는 今日二十一日 宮城에 還幸하옵실터이다 陛下께옵서는 十八日 鹿兒島港을 御出發하옵시엇는데 今二十一日午前八時三十分頃 御用艦比叡는 橫須賀軍港에 御入港 陛下께옵서는 逸見埠頭 御上陸 同九時五十分 橫須賀 御發 御用列車로 十一時반에 宮城에 還幸하옵실터이라고 拜聞되다

玉碎主義로써 祖國防衛에邁進
領土主權이 侵害되는境遇에

【南京十九日發聯合】國民政府는 北中新情勢에 對하야 領土主權의 安全이 貫徹되는限 이것을 容認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는데 但 領土主權에 害가 미칠 境遇에는 玉碎主義로써 祖國防衛에 邁進할 決意를 굿게할것으로 보인다

遞省要求七百萬圓

【東京電話電通】遞信省에서는 十九日午後 遞相官邸에서 省議를 開催하고 來年度豫算에 關하야 大藏省의 査定에 對한 復活要求의 方針을 協議하엿는데 第一回의 復活要求總額은 約七百萬圓에 達할 模樣으로 關係分은 左와如하다

大阪、鳥取、松江、北朝鮮間定期航空路開設費

五全大會와 南京政權의 將來
⑥ 李元坤
南京政權의 現勢

◇一九二七年 北伐成功後 以黨治國의 中國勢力을 形成한것은 蔣介石政權이다 這間에잇서 府內의 紛糾도 한두번이 아니엿스며 反政府運動을 經驗한지도 한두차례가 아니엿스나 그러나 이 모든難關을 突破하고 오로지 全國統一의 理想實現을 爲하야 邁進하여오는것은 蔣介石을 中心勢力으로한 南京政權이다 그러나 南京政權이 嚴密한 意味에잇서 中國의 統一政權이 되려면 그前途가 아직도 遼遠한 感이잇다 現在南京政權의 威令이 미치는 곳은 六七省에 지나지못한다 江蘇 浙江 安徽 湖南 湖北 河南 四川等이 그것이다 西南五省 廣東 廣西 福建 雲南 貴州는 아직도 半獨立的地位에잇스며 山東 山西 綏遠 河北 察哈爾 五省은 南京政權으로 事實上離脫하야 今明間에 自治政權을 樹立하려하는 現狀이며 西藏 靑海 西康 蒙古 新疆은 名目上中國領土로 事實에잇서서는 英、蘇、滿等列國의 勢力圈內에 屬한다는것이 正當한 觀察일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反蔣陣營을 論하기前에 먼저 南京政權의 構成要素를 一瞥하기로하자

◇

南京政權은 林森을 首領으로 하는 所謂 元老派、汪精衛派(親日系)와 孫科派(所謂政府系)及 元老派의 支援下에 蔣介石系를主流로하야 成立되여잇다 國民黨中央에잇서 蔣氏의 勢力은 六十餘名의委員을 擁하고잇스나 蔣氏를 支援하는 元老派를 加算하면 約八十名 汪氏系 二十名 孫氏系十名을 加하게되면 約一百十名으로 反蔣派(西南派四十名 其他三十名) 七十名에比하면 實로 壓倒的 優勢를 占하고잇다 元來 蔣介石氏는 黨內에잇서서는 後輩로 二全大會時에야 비로소 中央委員에 選出되엿다 그後 國共分立後(一九二七年八月)陳果夫 陳立夫等의 힘으로 黨部內에잇서 漸次 勢力을 增大하게되며 今日에 蔣氏政權을 樹立하게된것이다

國民政府內에잇서서는 主席林森 考試院長戴天仇 監察院長于右任 司法院長居正이 元老派로 蔣氏系統은 內政部長의 黃紹雄 軍政部長의 朱培德 交通部長의 朱家驊 海軍部長의 陳紹寬 司法部長의 羅文幹等과 財政部長兼行政院長代理인 孔祥熙이다 이에對하야 汪氏系統으로 指目되는것은 實業部長의 陳公博 鐵道部長의 顧孟餘 外交次長의 唐有壬等이며 孫科派는 立法院以外에는 업다 軍事委員會는 蔣介石氏의 牙城으로 거이全部가 蔣介石氏의 直系分子인것을 特記한다

◇

南京政權을 論하자면 그背後勢力이되여잇는 浙江財閥을 忘却하지안흘수업다 南京政府는 經費를必要할때마다 浙江財閥의 援助를어더왓다 浙江財閥은 江浙出身者로 上海를 本據로하고 活動하고잇는 金融業者들을 指稱하는것인데 그支配勢力은 極히 廣大하야 右財閥直系에 屬하는銀行은 中國銀行 交通銀行 浙江興業 浙江實業 四明 中國通商 中華商業儲蓄 中華勸業等이 그主要한것이며 中南 金城 鹽業 大陸의四銀行도 浙江財閥과 連絡하고잇는 것으로 모다 그勢力이 어떠한가를 推想할수잇다 浙江財閥은 蔣直系인宋子文 元老派의 張靜江二人의 關係로 一九二七年 國民黨軍의上海占領으로부터 蔣介石氏를 支持하여왓다 그리하야 南京政府樹立後 政府는 必要할때마다 諸財源을 擔保로 國庫券을發行하면 浙江財閥이 牛耳를잡고있는 江海關二五附稅國庫券基金保管委員會에서 此를 引受하는것이 慣例로 되여잇다 그리하야 公債發行에依하야 結付된 同財閥과 政府와의關係는 公債發行額이 增大되매따라 더한層 密接의度를加하고잇다 同財閥의 巨頭는 張靜江 虞洽卿 李銘 張公權 錢永銘等인데 最近에와서는 中國財界의 一般的疲弊에 影響되여 政府에對한 融資가 前과갓지 못하다 하나 그러나 只今에와서 南京政府에對한 關係는 끈흐라야 끈흘수업는 運命에 處하여잇다

◇

上述한바와가티 蔣氏系는 南京政權의 實權을 形成하여잇는 國民黨 中央黨部 國民政府 軍事委員會等 諸機關에잇서 絕對多數를 占領하고잇다 이것이 곳 今日에 南京政權을 蔣介石政權이라고도부르는 所以이다 그는 中央黨部와 政府府內에잇서 國民黨의元老派의 支援을엇고잇스며 財界와 政務官邊에 無視할수업는 勢力을 扶植하고잇는 汪孫兩派의 牛耳를 잡고 또는浙江、安徽、河南、湖南、湖北、江西에 直系部下를配置하고잇고 浙江財閥의 財政的後援을 엇고잇는만큼 南京政權을 西南이라든가 北中의 反蔣陣營에比하면、實로 太陽과 螢光의 比할것이다 그리고一部에서는 今回의 汪氏의遭難事件으로 汪派의 沒落을豫想하는때도 업지안흐나 그러나 汪派의 親日政策으로 南京政府에 存在意義를 가지고잇는 汪氏派의 消長은오로지 今後南京政府의 對日政策如何에 依存할것이라는것을 附記하여둔다

議會開會압두고 新黨結成實現乎
高橋藏相委員長承諾을確信

【東京電話電通】望月遞相을 爲始하야 山崎、內田兩相 秋田、水野兩氏等은 大演習前부터 潛行的으로 新黨樹立運動을 進捗하고잇는데 敎學刷新評議會委員問題를 中心으로 政友會의 反政府態度가 鮮明하게되여 來議會에잇서 政府對政友會의 鬪爭激化가 豫想되게되엇스므로 新黨樹立計畫도 急速히 實現할 必要가잇다하야 計畫을 進行하고잇다 그리고 新黨側에서는 結黨의 目的이 旣成政黨의 弊害를 打破하고 眞正으로 非常時局에 對處하기에 足할 强力한 政黨의 實現을 目標로하는이상 指導者는 國家的人物로서 當케할 必要가잇다고하야 望月、內田各閣僚로부터 高橋藏相의 出馬를 再三懇請한結果 大體로 高橋藏相도 承諾하리라고 確信하고잇다 따라 內田、山崎各閣僚(床次系)外 安達總裁의 國同一部를 糾合하야 約五十名의 代議士를 가추어노흐드라도 再開議會까지에 結黨式을 擧行하리라고 觀測된다

夕刊後市況 二十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一〇二三〇	(不變)
鐘新	一四六二〇	(不變)
日産	八一九〇	(不變)
東新	一七〇八〇	(一〇高)

◆橫濱 生系 後引◆
當限 九三七〇〇 先限 九〇八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〇五〇 先限 六一一〇

謹告

病魔에부닥기는사람들
◎生命保險金三拾二萬圓쓸데없다

【一言一句가 거짓이 업습니다。實證이 第一이니 試用해보십시오】

무릇사람의 萬病의根源은 암만하여도 惡血에잇습니다。이惡血의탓으로、胃腸病이되고 婦人病도되며 神經痛、動脈硬化까지생기는것이니、例하면 吹出物이만타거나 或은 痔疾로 辛苦하는분이 만히잇지마는、在來의藥을 바르고 붓치고하여도 그것은 一時的이오、정작 病源에까지 藥効가닷는것은 實際로 容易치아니하며、게다가 그一部一部를 마치잡은 하고잇는故로 恒常 도로 재발이라、암만해도 그根本인 惡血을 淨化하야 根本的으로 惡血을 除去하지아니하면 안됩니다。萬一血液이 新鮮하면 疾나 부스름은 나라도 낫을수가 업습니다 더구나 婦人病中에도 產後에 나쁜피가잇서 不純物이 停滯한때문에 身體保溫이 못되는것이니 이것이 萬一 新鮮한피라면 保溫이 잘되어 婦人病과 冷症이라해도 生길수가 업습니다。[illegible] 全身의 細胞機能을 旺盛하게하고 淨血作用의 結果 更少年하고 分泌機關의 整調에 依하야 全身에 活動을 일으키고、靑春의 情이 充足함도 結局 血液이 新鮮한때문입니다。허리가 아푸다、肩臂痛이 난다、神經痛으로 辛苦함도 모도 거기에는 原因이 잇습니다。그것은 무엇이냐하면 惡血이 뭉처서 毒素가 생기는 때문입니다。動脈硬化의 사람은 마치 寒中에 水道管이 얼어서 彈力을 잃은것과 가티 血管이 鞏해저서 아모 警告도 업시 突然히 터저서 죽는것도 모도 惡血탓입니다。[illegible]

日本生命十萬圓 明治十萬圓 帝國五萬圓 其他三十二萬圓의 保險에 加入하엿더니 [illegible] 血液을 新鮮케하야 萬病의 根源을 除去하여야합니다。現今醫學의先進國인 獨乙은 藥湯으로 萬病을 治療하는 療法에 成功하야 非常한 效果를 들어내고잇습니다。거기에는 아조 편하게 每日 沐浴하는 湯에 一日에 단五錢쯤으로 無上의 光榮을 가진 專賣特許 六一〇합푸를 湯中에 넣으면 고만이다。수고도 될것업고 이러케 簡單한 療法은 업습니다。痔疾로 고생하는 사람도 적거나 火釘질을 하지안코 注射도 안하고、沐浴만하면 不知不識中에 절로、毛孔으로 [illegible] 六一〇합푸를 吸收하야 로 大便小便에까지 六一〇합푸의 냄새가 나는것은 얼마나 體內를 淨化하고 血液을 新鮮케하는지 아실줄압니다。게다가 身體의 냄새가 배지안코 胃腸病을 爲始하야 癌種等에 모도 效果가 잇는것은 當局의 認可얻음을 보아도 明白하며(곱부一杯의水에 一滴을 떠러트려서、每食後 服用하면 밥맛이 썩조코 便通이 조하집니다)그것을 탄 浴湯의물로 洗濯하면 때가 잘빠지고 또 그것을 便所에 부으면「구데기」가 안납니다。一家가 모도 健康해지고 極히 簡單한 療法으로 이러케 고마운일은 업습니다。其他 諸種疾病에 實로 效果를 들어내어 皮膚病과 가튼것은 實効가 顯著하야 땀띠、진무른데 湯傷凍傷等은 一浴으로 征服하고 脫毛處에 數次 塗布로 그効果가 顯著합니다(當場에 비루먹어 털이 빠진 개에게 발러보시라 直效를 볼것입니다)火傷은 痕跡도 업시 나흐니 참말 一家의 必備藥으로 [illegible] 健康明朗하야 潑剌한 元氣가 滿滿(現今 얼골에 터더분 粉을 바르는것은 流行치 안습니다)정말 體內에서 울어나는 眞美의 아름다움이 第一입니다。얼골에 주름살하나 업시 生氣잇는 얼골에 넘치는 健康色입니다。(社長은 多數한 公務를 가지고 日夜大活動을 하시지마는 조곰도 그疲勞를 모릅니다)特히 主婦로서의 기쁨은 愛兒가 감기하나 안들고 發育이 잘되게하며 무럭무럭 살이 오르는것 [illegible]

無上의 光榮에 浴하는 專賣特許 六一〇합푸와 同樣의 效果가 잇는듯이 宣傳하야 利益만을 追求하는 奸商이 잇다。그러나 六一〇합푸는 製造가 至難하고 高貴藥을 配劑發明 專賣特許藥으로 絶對로 模倣을 不許함、名稱의 類似、外見同樣이라도 效果에 잇서서는 天壤之判이 잇습니다 醫學界의 權威者 各先生의 臨床成績에 徵하야도 明白합니다。

陸軍一等軍醫 伊藤先生 醫學博士 川地先生 醫學博士 林先生 醫學士 荒川先生
醫學博士 森先生 醫學博士 長谷川先生 醫學博士 [illegible]先生 各先生御推奬

無上之光榮
※
[illegible]

右記一讀하신後 無上의 光榮잇는 專賣特許 登錄商標 六一〇합푸를 使用하실事

一七〇グラム 小瓶 一圓(送料 二十錢)
五〇〇グラム 中瓶 二圓二十錢(送料 三十錢)
一〇〇〇グラム 大瓶 三圓五十錢(送料 五十錢)
二〇〇〇グラム 特大瓶 六圓(送料七十錢)

希望하시는분은 (朝鮮日報名記入)見本、請求、歡迎、贈呈

名古屋市
發賣元 六一〇ホシコー
武藤鉦合名會社藥品部
營業所 電話本局(2)六六〇
熱田工場 電話南局(6)六一〇〇
振替口座名古屋二六一〇〇

다른물건에도알리어기뿌게하십시오
藥店・特約店에잇소 [illegible]

朝鮮의總人口는 二千二百八十九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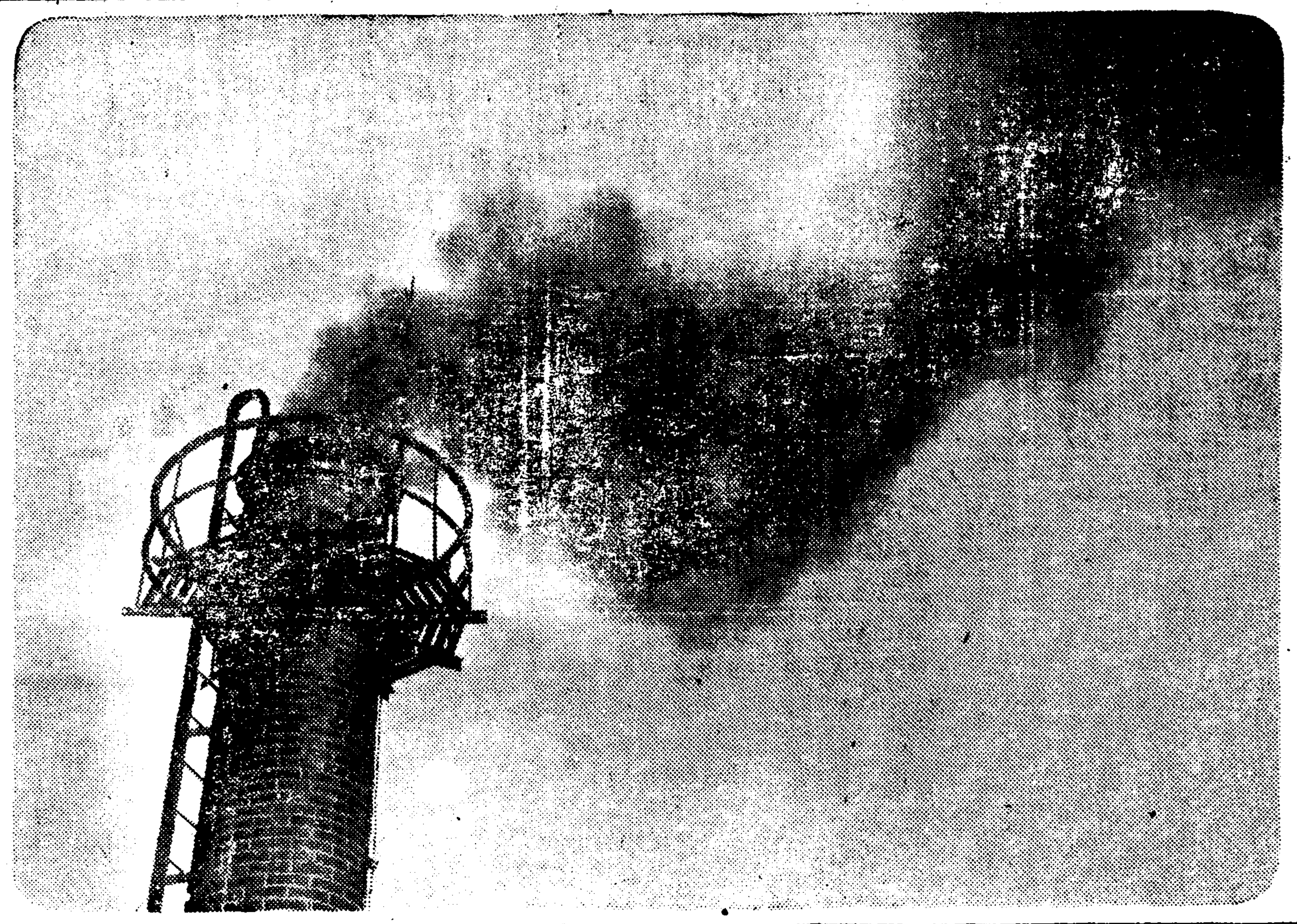
五年間에一擧百八十四萬人이增加

去月國勢調查結果發表

지난십월일일 전조선에서 일제히 실시하게된 국세조사의 결과를 이십일 총독부로부터 발표하엿는데 조선의 총인구는 이천이백팔십구만육천백구십오인으로 이수자를 전번소화오년 국세조사당시에 비하면 일백팔십사만사천백구십인이 증가되엇는바 전기총인구중에서 남자가 일천일백육십육만이천육백사십인이요 녀자가 일천일백이십삼만사천오백오십오인이 만흐며 도별로 본다면 경상북도의 이백오십육만삼천이백오십구인이 제일위요 그다음이 전라도 경기도등의 순위요 함경북도의 팔십오만이천팔백칠명이 제일적다고한다

昭和十年朝鮮國勢調查速報世帶及人口

道名	世帶數	總數	男	女
京畿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寒空을 뚤코……

魔術처럼업서진 現金二千圓뭉치

宿泊客으로부터任置十分後에 本町호텔에怪盜難

요사이 련말하는 년말과함께 부내 각처에서 꼬리를달고 이러나는강도, 절도사건으로 경찰의신경을 몹시날카롭게하여 각서에서는 특별경계를 례년보담 훨신 닥어서하고잇는이때 또부내 유수한「호텔」에서 괴상한도적마진 사건이 이러낫다

즉 지난십구일 오후두시 본정(本町)일정목백번지에잇는「본정호텔」에서서(西)백십삼호에 묵고잇든 유명한 평사여지 평송회래랑(平松宮太郎)씨의비서 국무규(國武乿)(三〇)씨가「호텔」[illegible]에맡어 가젓든현금 일천구백구십원—십원자리조선은행권 일백아흔아홉장—을 하도롱봉투속에 너허가지고 사무실에잇는 홍성순(洪聖俊)(二〇)이란「뽀이」에게 주면서 금고속에 아러두라 고하여 홍소년은 이것을 바더든는 길로 조심스럽게 손철궤속에다가 너허두엇섯는데 그리한지 십분가량 지난후에 돈쓸일이 생겨서 그돈을달라고 국무씨는 다시 내달라고햇스나 때는벌서 그돈이누구의짓인지? 모르게 마술군의 작난피가리 철궤속에서 사라지고 만때엿다한다. 그래서 귀신조차 놀랄만치 벼락도적을마진 도주인은 물론 이런도난사건을 내인그「호텔」에서는 깜작놀라는 동시「호텔」에서대나게 되구나 눈깜짝할 동안에 손님이애끼 적지안흔돈을 도적마진것은 전례가업는 일이라하여 소관본정서(本町署)에 급보하엿다한다.

이계출을바든 그서에서는 독이나 지난번 대뎐상회(大田商會)도난사건이잇서 그범인을찻기에 힘을 다하고 잇는 이때 또그가튼 대담한 도난사건이생겻스므로 압서적은「뽀이」를 비롯하야 준호텔론「호텔」주인이며 그밧게 사무원일동을 엄중히 취조하는중이라한다.

稅吏로假裝 一洞을搜索

"卽決罰金"을詐取

지난 십이일 오후 경남 함안(咸安)출생으로 주소가 일정치 안흔 김재익(金在益)은 합천(陜川郡)하 모처에서 자기는 세무서원(稅務署員)이라고 자칭하고 약사십여호나되는 동리를 전부사찰하되 몰래 술을 해먹은 김주천(金柱千)에게서 직결처분으로 벌금이라고하야 돈 사원을 바든것을 비롯하야 여러곳에 들어다니며 이와똑가튼 수단으로 돈을 사취하여왓든일이 발각되야 방금 소관합천서에서는 그의행방을 엄탐중으로 이십일에는 경긔도경찰부에도 수배가 와다

江건너다가溺死

이십일 오후두시반쯤에 부외 한지면두모리(豆毛里)한강 연안에서 나이예순가량 되여보이는 로인이 강을건너다가 빠저죽엇는데 이는부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팔십번지 박진성(朴鎭性)으로 알려젓다한다

權榮台等公判에 廿三名은無辯護

廿日부터判事가刑務所에出張 被告들面面에公判進行注意

전조선적으로 공산주의운동을 이르키려다가 발각된 사건범죄 새로동조한사건의 관계자 국제공산당특파원 권녕태(權榮台)경성제국대학조수 정태식(鄭泰植)등 남녀삼십사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은 이십이일 오전아홉시반 경성지방법원에서 제일회공판이 열리기로 되엿는데 그가운데서

▲鄭泰植—辯護人 金炳魯 永島雄藏
▲韓六洪—同 具滋觀 山崎丹太郎 辛泰嶽
▲金大容—同 金用茂
▲安秉潤—同 藤野愛泉
▲邊雨植—同 李基燦
▲鄭龍山—同 小松橫五郞
▲崔永昌—同
▲朴鍾昌—同 木尾虎之助
▲朴鵬斗—同
▲李丙驥 ▲李景仙(女)同

등열한명은 각기변호사를 대엿스나 남어지 權榮台 安炳春 金晋成 安三遠 安鍾瑞 李順今(女) 徐升錫 鄭七星 李明新 李鉉相 崔小福 金熙誠 南萬熙 崔慶玉 任澤宰 李直眞 李元基 金三龍 卞洪大 金元經 李君川 洪承文 許마리아(許瑪利亞)(女)등 스물세명은 변호인도 업시 그냥 공판을 밧게되엿다 이공판의일을 압두고 산하(山下)재판장은 이십일에 차목(茨木)서기를 데리고 서대문형무소로 가서 피고들을 일일히 맛나보고 공판진행에 대한 의견을 듯고 주의도 잇섯다 한다

傷人强盜犯 威化面서逮捕

新義州署員들손에

【新義州支局特電】얼마전 의주경찰서의 경계망을 버서나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파수경관의눈을피하야 어데론지교묘히 도주해버린 상인강도(傷人强盜)평양수옥리(平壤水玉里)출생정태진(鄭泰辰)이라는 별명을가진 김익선(金益善)(二〇)은 도주도중에 신의주부내 칠룡양복점(七龍洋服店)에 드러가서 외투한벌을 도적하여 입고 다단히 방한준비를 해가지고 도주하엿든데 그는 드듸여 멀리뛰지못하고 이십일 오전 세시쯤에 의주군위화면(義州郡威化面)미륵산(彌勒山)밧속에서 신의주경찰서 목증(木曾)순사부장등 세명의 수사대에게 붓잡혓다

移管,買收中止 北朝鮮鐵道落着

結局納付金減下하는程度서 滿鐵에서經營키로

북조선철도를 중심으로 남만주철도회사가 위임경영(委任經營)으로부터 단번에 매수하든지그러치안코 도루 조선철도가 웅라철도(雄基羅津鐵道)를 매수하야 북조선철도를 철도국경영으로 회원시키고저하는 의견도잇든터에 마츰 서울에온 송강(松岡)만철총재를 마지하야 정치적해결을 어떠케할것인가주목된다 이문제는 이미동경에서 거기에가서 잇든 길전(吉田)철도국장과 만철당사자 및 륙군성(陸軍省)척무성(拓務省)당국자사이에 협의를하야 만철로서는 만주국내와 북중의 새사태에 대응하야 여러가지로 중요성이 만흔사업을 아페 두고 북조선철도를 옴겨다가 관리함은 조선만주철도의 일원(一元)으로 구체화하기 까지에는 도리혀 너무번거러운 일이라하야 급히 이것을 실현하기는 어려웁다 송강만철총재도 이점에관하야 만주국의 문제만이 겨우 머리에드러왓슬뿐인 오늘에 잇서서 그러한 문제는 아즉구체적으로 생각하잇슴은 업다는 의향을 분명히말하엿스므로 도로혀 조선철도국의 매수설이 유력하게되여 잇는 모양이다 장래에 조선, 만주철도일원화(一元化)가 실현될때에 다시 북조선철도를 좌우할 자미업다하야이에 만철위임 경영의 현상유지하야 총독부의 납부(納付)감액의 교섭이 개시되게 되엿는데 총독부로서도 만철이이문제가 예상 박그로 성적이조치못하야납부금을 제하고 나면 별로히 수익도 어들수업는장차만철의 만주국내의 국책사명에비초아 보아서 이때에 납부금액을감하야 북조선철도의 장래성에 여유를 가지게하고 또한만철의 사명달성의 한가지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라는 대국적견지로 드듸여 납부금감액을 승락하게 되엿다한다 그리고 그세목에 대해서는 방금총독경에서 절충하고 잇스나대체로 현납부금률의 삼분지일이 감액될것으로 본다 이십일에 서울에 온 송강만철총재는 이점에 관하야 총독부의 호의에 사례를표한듯하다

貨物列車가顚覆

乘務員四名重傷,原因은不明 京東線水原龍仁間서

이십일 오후령시 이십분에 경동철도(京東鐵道)에서 긔차가전복되야 사람네명이 중상을 입엇다

사고가 생긴곳은 경동철도어정역(漁汀驛)에서 수원(水原)쪽으로향하야 이백메돌 되는곳으로 곡식을실흔 화물렬차에 긔관수 한응성(韓應成)화부 윤광인(尹廣仁)차장 오무영(吳武泳)등 세명이 타고 이날 오후령시 오분에 룡인역(龍仁驛)을 떠나 수원으로 가든중 전기 장소에서 약 이십미돌 진행하야 전복되엿다 그래서 승무원은전부 중상을 입엇다

그 화물차는 긔관차 다음엔 뚝경업는차 두대 그다음에 뚝경잇는차 한대 또 그다음에는 뚝경업는차 한대의 순서로련결하야 벼삼백팔십가마니와 현미백가마니를실고가든길이엇다 원인은 아즉 알수업스며 전복된 장소에는 약이십미돌가량철도침목(枕木)이 부서저버리고「레일」접속된 부분이 떠러저버리고 그밧게「레일」이 활장가티 굽어저서 선로밧그로 버서나 버렷다 사고가난것을 보고 구조하려갓든 홍석근(洪錫根)이라는 사람도 중상을 입어서 부상자네명은 전부 수원도립의원에 데려다가 치료중이다

一夜兩處를襲擊 金品을强奪後三名을拉去

棍棒을가진兩名强盜團이 定州郡下玉泉面서

【新義州支局特電】평북 정주군옥천면월옥리(定州郡玉泉面月玉里)백두옥(白斗玉)(六〇)의 집에 십구일 오후일곱시반쯤에 두명의 강도가 몽둥이를 들고 드러가서 돈을 내라고 강청하엿스나 현금이 업섯기 때문에 주인을 붓잡아가고 이어서 그날밤 열시에 그 동리 정재경(鄭載慶)(二五)의 집에도 드러가서 밥을 청해 먹고서 정씨의 부부를 묵거노코 그집방안을 수사하야현금 이십일원과 금반지 두개와기타 갑진 물건을 강탈하야가지고 그근처 산가운데로도망하엿다한다 그곳경찰대는 그산을 둘러싸고 그범인을 찻는중이다

仁川日用品市場問題 住民側이再起

府의契約不履行으로

【仁川】현무역의 사배여정으로 확장계획중의 대인천항에 갓종 시설이 계속착수중이라함은 임이 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중북촌의조선인시가중심으로한 유일의시설인 송현리(松峴里)일용품시장문제는 주민사십칠호의 반대로 암운에싸혀잇든바 쌍방의 양보로 해결의서광을 보이여 이대지로 신화수리(新花水里)례배당압 공지로 정하고 계속철거중이든바 돌연 주민측으로 부터 부당국 해결당시에 말하얏든바와 달은태도를 취한다하야 또다시문제는 재연되고잇다 하는데 자세한것을 조사하건대 해결조건은 전기이전지를 일반주민삽십칠호에대하야 매도한후 지가는년부상환키로말하얏든것이 이전을시작한오날에이르러 히망자에게한하야 매도치안코 도리혀 임대차(賃貸借)계약을하자함으로 이에문제가 재연된것이다

主人書翰를窃取逃走

부내 대화정(大和町)삼정목이번지 대전민남(大畠敏男)의 집에 류숙중인 소지룡태랑(小池龍太郎)(二〇)은 그의 주인 대전이가 집을 맷기고 어대로 간것을 틈타서 시월 십일일부터 이달십일까지 사이에 그주인의 서화(書畵)시가 약일천삼백원어치와 집세 들어오는것 일백사십원을 횡령하여가지고 어대로 도망하엿슴으로 방금그의 행방을엄탐중이라한다

籠球聯盟戰第十一日 (中學部 靑年部)

一高의機敏한攻擊 强陣·徽文을擊退

養正、道商을이겨首位에 普專、K籠兩軍各勝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第九回籠球聯盟戰第十一日은二十日午後六時半부터 鍾路靑年會體育館에서徽文高普對第一高普對戰으로 開始되엿다 一高軍戰前의豫想을 깨트리고 强陣!徽文軍을 苦境에빠지게하야 場內는 刻刻으로『엑싸이트』하드니 前半은 十六對十五로 徽文軍一點을 리-드하엿다가 後半에드러가 一高의 機敏한攻擊은 徽文의 牙城을 끗끗내 擾亂케하야 同點되기 무릇 四次를 거듭하드니 드디여一點差로 一高가이겨 全勝軍을 차지하고잇든徽文軍은不運의 一敗를 당하엿다 이리하야 이날 道商을이긴 養正과함께 八割로同率에 處하야잇서 徽文陣頭에는 一抹의暗雲이 떠돌고잇스니 波瀾重疊할 中學一部戰의 興味는더하여잇다 靑年部의 K籠이三角을 普專이法專을 各하이겻다

中學第一部=徽文對一高戰 午後六時半 宋基守、金化泳兩氏審判 (계안時間二十分)

一高 28 (13·15 / 11·16) 27 徽文

位置	【一高】	前	後	反
F	趙昌九	2	0	0
F	許鶴九	6	7	2
C	金龍鎬	5	6	1
G	朴勳植	0	0	2
G	孫完廷	2	0	2
	計	15	13	7

位置	【徽文】	前	後	反
F	姜日東	3	8	1
F	尹恒燮	5	2	0
C	黃華鳳	2	0	1
G	金容武	6	0	2
G	申鳳浩	0	1	0
	計	16	11	4

中學第一部=養正對道商戰 午後七時 李惠澤、孫禎俊兩氏審判

養正 62 (38·24 / 11·17) 28 道商

位置	【養正】	前	後	反
F	白南鎭	4	0	0
F	元裕喆	0	3	1
F	鄭虎燮	3	2	0
F	張聖醫	0	10	0
C	申宗淳	9	8	2
C	金根培	0	4	2
G	方元淳	4	4	0
G	韓世一	4	3	0
G	李亨植	0	4	1
	計	24	38	6

位置	【道商】	前	後	反
F	李相勳	3	4	3
F	孫光善	0	3	1
C	劉永一	2	0	1
G	韓哲洙	0	0	3
G	李命商	0	2	4
G	韓龍雲	2	2	0
	計	7	11	12

靑年部=K籠對三角戰 午後八時 孫禎俊、田益鎬兩氏審判

K籠 43 (23·20 / 16·15) 31 三角

位置	【K籠】	前	後	反
F	金鍾勳	5	6	3
F	韓載午	8	11	1
C	南基鍵	2	2	2
G	金鳳官	3	2	3
G	李長源	2	3	3
	計	20	23	12

位置	【三角】	前	後	反
F	朴泳鎭	1	8	1
F	崔榮賢	2	1	1
C	趙南重	3	0	1
G	金珏漢	5	1	3
G	崔奉煥	4	6	3
	計	15	16	9

靑年部=普專對法專戰 午後九時二十分 李惠澤、孫禎俊兩氏審判

普專 66 (21·45 / 16·4) 20 法專

位置	【普專】	前	後	反
F	申光浩	10	0	0
F	洪淳鎬	0	3	2
F	崔海龍	12	0	1
F	閔正武	0	2	0
C	金致雲	12	0	0
C	金炯奭	0	7	0
G	辛在湘	8	7	1
G	金善徹	0	2	0
G	李文鎬	3	0	1
	計	45	21	5

位置	【法專】	前	後	反
F	李炫	0	3	1
F	韓成澤	0	8	3
C	趙敏鈺	0	2	1
G	趙彰熙	0	2	1
G	金潤洙	4	1	1
	計	4	16	7

籠球豫選延專軍이勝捷

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의朝鮮代表를選定할 朝鮮豫選兼第二日의 延專對高麗戰은 二十日午後一時부터 靑年會에서 尾崎、鄭兩氏審判으로 開戰되엿는바 最初부터 延專이 好調로 進攻하야 前半을 리-드하엿다 後半에 드러 高麗는 猛烈히 反擊하얏스나 追及치못하고 惜敗하엿다 (계안時間四十分)

位置	【延專】	前	後	反
F	金應鎬	2	4	0
F	孫祺俊	2	0	1
F	洪文占	8	15	0
C	廉殷鉉	8	6	2
G	張利寶	6	8	0
G	李萬傑	0	0	0
G	李性求	0	0	1
	計	26	33	4

位置	【高麗】	前	後	反
F	曹東煥	0	0	2
F	尹正燮	2	7	2
C	金在春	1	9	2
G	宋基宇	0	0	2
G	安台慶	6	12	0
G	金化泳	0	4	0
	計	9	32	8

第11日戰率

【中學第一部】

順位		試	勝	敗	率
1	徽文	5	4	1	0.800
1	養正	5	4	1	0.800
2	普學	4	3	1	0.750
3	儆新	5	3	2	0.600
3	中東	5	3	2	0.600
4	一高	5	2	3	0.400
5	道商	5	0	5	0.000
5	協成	4	0	4	0.000

【中學第二部】

順位		試	勝	敗	率
1	普成	2	2	0	1.000
1	京實	2	2	0	1.000
2	培材	2	0	2	0.000
2	中央	2	0	2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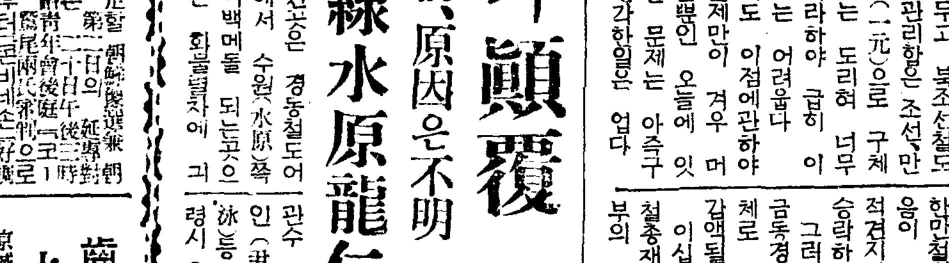
【靑年部】

順位		試	勝	敗	率
1	延專	5	5	0	1.000
1	高麗	5	5	0	1.000
1	普專	4	4	0	1.000
2	K籠	6	2	4	0.333
3	世專	4	1	3	0.250
4	法專	5	1	4	0.200
4	三角	5	1	4	0.200
4	讀友	5	1	4	0.200

齒專蹴球部 九州에遠征

京城齒科醫專蹴球部選手一行은 來廿三日부터 九州福岡에서열리는 九大主催의 高專蹴球大會에 出戰하야 連覇코저一行十三名은 監督渡邊氏 引率下에 今二十一日 午前十時五十分 京城驛發列車로出征할터인데 一行은 歸途 大邱에들러 大邱醫專과도 一戰을 交할 豫定인바『멤버』는다음과갓다。

▲引率者=渡邊氏 ▲副部長=趙基富 ▲主將=劉義鏞 ▲監督=[illegible] ▲選手=張元仁 白樂秀、朴鑾浩 鄭[illegible] 趙毅鎬 李鍾九 李允鎔 鄭[illegible] 金明煥 金鎭格 金鍾來 吳在仁 尹龍[illegible] 田得秀 金漢慶 鄭南[illegible]



◇九州遠征의 齒專 蹴球部一行

普專對高農러비戰

明春甲子園에서 열리는 全日本高專러비大會 朝鮮豫選A組는 京城醫專과 京城高工이 棄權하엿슴으로 京城法專이 決勝에남어잇고 B組는 普成專門對水原高農의準決勝戰이二十四日 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게되엿다

今日의運動

▲籠球=中央基靑主催의 第九回籠球聯盟戰第十二日 靑學對儆新(午後六時半)徽文對協成(同七時卅分) 延專對高麗(同八時十分) 世專對籠友(同九時)番外競技 K籠對靑友 靑年會體育館 ▲러비=中等러비豫選 培材對京商(午後三時半)龍山球場

家庭生活者에告함

結婚에隨伴 梅毒感染의慘害

治療는빨이발으게

特히注意하고십흔 不姙症과皮膚病

淸淨無垢한 靑年男女가結婚한때에는、그夫婦間만에는決코梅毒은안생긴다。더구나이夫婦間에는健全한 家庭이맨들이여 所謂一家團欒한樂園을 맨들고、그子孫도亦强健하야永遠히此世의 幸福을 享樂할수가잇슴다。그런데 一次不潔한 關係를맺는時는 반다시梅毒感染이되게되며또다시不潔한關係外에도 病毒이 附着한物品에서、偶然히 感染되는일이잇슴다 이것은 所謂 淸淨梅毒이라고하나어느거나梅毒의感染은 제가맨들어서 病魔의犧牲에 걸녀서 스스로 死地로 驅入한것이나맛찬가지다。그러나또 잘못하야 病毒感染의不幸에빠진境遇는 早期治療가조흔것며一刻이라도빨이무서운梅毒의病根을一掃할것이다。以下特히新婚生活에계신各位를爲하야알어둘만한梅毒治療上의二三을陳述하야參考에供한다。

時 節이 時節이라 이는結婚生活에 들어가는사람이만타。그러나、現在淸淨無垢한新郞인사람은結婚生活의幸福의反面에는、또可恐할梅毒이潛在한것을生覺하지안흐면안된다。勿論男便이모다 保菌者라고 할수는업다 萬一保菌者이면 當然히感染되는것임으로 가차운將來 一二年後부터流産과 不姙症에苦痛한분의始半은틀림업시 感染되야잇다고보와도 틀림은업다。

폐 루친이라는學者에 依하면 兩親이다梅毒을가진夫婦가六回姙娠하야서一回는六個月死産、二回는 七個月早産하야 그 嬰兒는 八時間에死亡 三回는七個月半에 流産四回는 正規的으로 梅毒兒를分娩하엿스나 十八日만에 死亡하엿다고— 이것이 梅毒의可恐한것을 如實이 말하고잇다。

또 이러한梅毒感染한婦人에 限하야목덜미가에梅毒性白斑點이나러나고頭髮이脫落한다勿論이것은、梅毒의榮養障害를바든結果로後頭部가特히빠진다 또粘膜에梅毒의조희라고寄生繁殖하는곳으로口腔、口唇、혀、뺨、口蓋、咳頭、肛門에여러가지變化를뵈이고、皮膚는黑色을띈貧血性의蒼褪한것으로 옛날漢方醫는이빗으로梅毒의 診斷을내렷든것이다

더 욱婦人에게注意하고십흔 것은發疹되는것을普通여드름으로 輕視하는것으로 여드름狀發疹은梅毒性丘疹이라하야서散在性으로發生하는바、放任하면膿疱症이되고 擴大內攻하야서、全身에破壞現象을呈示하고잇다。그러나다시晚期潛伏期라고하야、病毒이潛伏하여잇는時期가잇다。이것은가장危險性이잇는것으로한번再發하면惡性의고무腫、關節炎、骨髓炎等의病變을일으키여、드듸여外部에波及되야터저서고롬이나오는悲慘狀態로된다。

以 上은勿論婦人에게만의病變이안이라、男子에게도 가튼結果가襲來하는것임으로 梅毒에苦生한분、또는그疑心잇는분은이때더욱바른治療가必要하다 ベルツ丸은經口驅梅內服藥이라고할여저서第一期第二期梅毒에對하야서 異常한効果를가진바、特히第三期症狀의破壞性發疹、고무腫、梅毒性關節炎、神經痛等에 奏効하고 硬結部의軟化作用을비롯하야 血液의淨化 殺菌排毒作用이强하야 그때문으로患者는 血液의檢查에依하야서그有効度를알수가잇다。

本 劑는全身的으로體質를改善하야內臟機能을旺盛하게하고또新陳代謝作用을놉혀서藥効로써 血液에侵透케하야어려운部分까지 軟化吸收식히는作用이잇고 또그効果를 擴實하고잇다 一般梅毒、體毒、痳毒、橫痃、腦梅毒、遺傳梅毒、濕毒、冷毒、痛疾의皮膚病여드름、脊髓癆、고무腫、動脈硬化、루마치스、便秘等梅毒疾患에 苦惱한분은꼭ベルツ丸에依하야서 正規的驅梅療法을 實行하야서一日이라도 빨이이 可恐할梅毒을病根부터摘滅하라。

血液淨化 와참기붐

尼ヶ崎雜波 杉○よ○子

拜啓、貴店益益繁榮하심을仰賀不已합니다。第我小生이 宇治山田市在住中 貴店의藥을服用以來 昨年正月當地에移轉하야其後에도 連續當地藥店에서ベルツ丸을 買求하야今日까지服用하고前日大阪地醫師의紹介로 當微生物學研究所에 血液檢查의結果ワ氏反應陰性으로서完全히快癒된 것은오즉貴店ベルツ丸의惠澤이라고感謝합니다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獨逸ベルツ博士 SUZUKI NIPPON-SEIYAKUSHA

梅毒、體毒、痳毒、橫痃、濕毒、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류마리스、痛疾이皮膚病梅毒性부름、여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便秘等諸般梅毒性疾患에良効있음

價藥 六日分一圓・十二日半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四十二錢・代引十錢五增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清二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茅場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大田의要望 (一)

特派員 金 ○ 静

허울은府로昇格 人口는四萬突破

朝鮮人經濟實力은 어떠한가 말못되는 우리富力

대전(大田)은 지난 십칠일 일에 새로 부(府)로 승격하야 최근삼십년간에 정치 경제 교통상 매우중요한 지위를차지하게되엿다 이와가치 근대적도시로서의 면모(面貌)를 가추게된 대전부민의 살림사리형편은 어떠하며 또 그들이 절실히느기며 요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대전은 경부본선(京釜本線)의대계중간에 위치하고 호남선(湖南線)의 긔점으로 남부조선에잇서 교통상 요충일뿐아니라 충청남북도의 물산이 집산하는곳으로 상업경제상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대전은 국경도시 신의주(新義州)와 마찬가지로 신흥도시다 일로(日露)전쟁당시에 경부철도가 부설되자 일본내지인이 이주하기 시작하고 부근에잇는조선인이 만히 모혀들게되엿다 대정(大正)삼년에 호남선이 개통됨에 따라 군산(群山) 목포(木浦)두항구에 통하게되야 실로교통은 사통팔달하야 상업경제와 교통상의 중심지로 발전을 보게되엿다 더욱 소화칠년에는충남도청이 공주(公州)로부터 이리로 이전을하고 금년시월일일에는여러해동안 시민이 갈망하든 부제(府制)도 실시되고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까지 설립되야 정치적으로 충남의중심지가되엿다 작년에는 상수도(上水道)가 개통되고 하수도(下水道)도 정리되야 구획이 정연(整然)한근대도시의 면모(面貌)를 가추게되엇고 인구도 금년시월일일의 국세조사에는 사만을 돌파하게되야 조선에서도 유수한 도시로 일홈이 나게되엇다

그러나 신흥도시인 대전의실상내용은 어떠한가 시민의 살림사리는 어떠하며 모든시민에게 공평된 시설이되어잇는가 교육긔관은 어떠하며 위생시설은얼마만치 되어잇는가 그리고 또 대전이라는 사회의 경제적실력은 특히 조선사람의 경제적실세력은 어떠한가 긔자는 발충에 대전역에 내리자 비교적광장한 정거장과 그압광장(廣場)이 크고 넓고 전시가에 바둑이는 길들을 매우 잘 정돈된 가로(街路)도 이슬름조잡이만흔것들을 보고서 대전이라는 상당한 도시이구나 하고생각하는 반면에 이러한 대전의 푸른들(?)를 보고 문득 늣기것은 이곳에도 조선사람은 만히살것이지만 아마그경제적힘이라는것은 변변치 안흐리라는 예감이잇섯다

잠간동안 쉬여가지고 아침에 도청으로 부청으로 차저서 당국자를만나 충청남도의 사정을 듯고부(府)로서 새살림을 시작한 대전의실상을 듯고보고 과연 긔자의예감은 틀림업시 드러마즌것을아럿다

긔자는 내외 고향인 신의주가 신흥도시로서 발버온길을 잘알고 또 현재의 발버가는 발전과정을 잘알기때문에 대체신흥도시라는 것은 어떠하다는것을 짐작하기때문에 대전에 대한지식이 적은 나로서도 대전이라는도시의 내용을 대강짐작할수잇섯든까닭이다

충남도청의 조사에 의하면 대전에는 이십만원이상의 부자가여들명이잇는데 조선인은 그중에 하나도업고 조선인은 십만원정도의 부자가 두사람뿐이고 그외에 이삼만원부자가 수인잇슬뿐이라한다

물론부자가 만타고 조흔것은 아니지만 큰부자가 적은대신에 자본주의사회의 중산세력이라할 중산계급이 발달되엿는가 하면 그러치도안타

일례를 들면 대전 상공회의소의 회원을 보면 일본내지인이 이백이십구인인데 조선인회원은 그상분지일인 칠십오인밧게 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을보아도 대전의 조선사람의경제적힘이라는것은 어찌나 빈약한지를 알수가잇다 물론 조선인의 경제적힘이 빈약한것은 오즉 대전뿐이안니고 어느도시 어느농촌을 물론하고 전조선의 공통한 사실이겟지만 대전은 상당한도시로서 그중에서도 더심하다는것이다

이러한 빈약한 조선사람의세력에잇서서 대전의 시설을 직접보고 이를 비판하며 또우리조선인의 대전의 발전책은 무엇이며 당면의 긴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교육문제 위생문제 사회문제 여러가지 중대문제가잇스니 이것을 이번에 긔자가직접 대전을 답사한바에따라 그늣긴바를 본바를 기록하는동시에 대전인사가 기대하고잇는대전의 번영책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저한다

(계속)

허풍선景氣바람에 水組費引上續出

細農에밋치는打擊實로莫大 咸興水組一割餘決定

【咸興】 함흥수조(咸興水組)에서는 금번도에 구역내전부가 풍작으로 수확에 다소 증수되엿다는것과 례년에비하여 벼까(正價)가 고등하엿다는 리유로조합원에게 일할오분에조합비인상을 결정하엿다는데 사오년간 흉작에 궁주리다가 금변에야 겨우 구채나 정리할가하든 일루의 히망을 가젓든동민들은 다시금 수세(水稅)의과중부담으로 일장공황으로 화하게되여여론이 매우비등하다고한다

本社支局後援 修養講演盛況

【宣川】 선천회관주최 본보선천지국후원으로 지난십일월십륙일오후칠시반부터 당지선천회관에서 장리욱선생이 강사로社會生活과人情味라는제목으로 수양강연회를 개최하엿든바 일반청중이만히모혀성황을이루엇다고한다

淸潔檢查갓든巡查 泥醉하야暴行

事件은漸次擴大形勢

【東倉浦】 황해도 안악군안곡면주재소원 모(某)는 지난십이일에 그관하안곡하리로 청결검사를 나가서 검사를 마치고 오후네시반에 중하리 구장 최창영(崔昌永)씨집에서 본동에 사는 림긔관(林基觀) 오준선(吳俊善)량씨와 안곡면서긔 김득용(金得用)등 제씨와가티 술을 마시든중 만취된순사는 안악경찰서 무도관건축에 대하야 중하리 임정재(任貞宰) 오준문량씨가 긔부하지아니하엿스니 그두사람을 차저오라하므로 구장최창영씨가 차저가보니 오씨는 진남포에 가서 업고 임씨는 어대인지 출입하고 집에 업스므로 그대로 도라가서 모다 집에 업스니 후일에 맛나보라고한즉 그 순사는 가리안젓든오, 림량씨를 구타하고 칼을뽑아 이사람저사람의 목에다가대이며 한참텀비다가 다시뛰여나가서 오준문의 집에가서 주인을 찻다가 주인이 업다하니 오씨의부인을 구타하면서 청결을 잘못하엿다고 야단을치고 또다시 임정재의집에가서 주인을 차젓스나 주인은 업고 문밧게 임정재의형인 임응재(任應宰)가 서서잇는것을 보고 그의면상을 부집고 구타한으로 임씨는 [illegible] 무리한일이라고 대항하게되자 순사는 다시 한도자루로 임씨의 손잔등을 처서 중상을 납힘으로 이를 알게된 동리사람이 모두르면서 도망하므로 동리 청년 수인이 달려가서 그 순사의 정복을 벗기고 한도와 모자까지 벳서노코 구타한 일이 잇섯다 고 한다 이를 알게된 경찰당국은 중하리 대하야 조사한바 그 일대에 잇는 청년이란 청년은 전부 잡아다가 동십오일에 안악서로 십삼인을 압송하야 엄중취조중이라는데 동리사람들은 그순사의 복장을 안곡주재소에 가저다가 밧치고 동리여러사람의 날인으로 경찰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엿스나효과가 업는듯함으로 검사국에 고소를 제긔하라고 준비중이라는데 금번압송된청년중에는 당일에 참석지도아니한 애매한청년이반수이상이나되며 압송된청년의씨명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任應宰 任公燁 吳俊善 崔永蘭 吳俊稷 吳希權 吳俊三 崔昌俊 韓宗烈 宋世實 宋奎鎬 柳宗乾

吳漢權氏特志

【水橋】 송화군봉래면수교리 수교의원장 오한권(吳漢權)씨는 사리원도립의원 의사를사퇴하고 작년구월에 당지로 이거하여 개업하엿는데 동씨는 지방극빈환자의무료치료를하여왓스며 더욱이 인간사회에 제일가련한 안맹(眼盲)자를 곳치겟다는 결심을 가지고 수년간안과(眼科)에주력을다하여 연구를거듭하여오든결과 십여인이나 안맹자를 치료하엿스며 최근에는 송화군연방면마산리박영서(朴永緖)의 부친과 은률군북부면 양정리 조영희(趙永熙)모친은 수십년간이나 안맹(眼盲)되엿든것을 완전히 치료하여 다시 천지광명의 길을 보게되엿다는데동오의사의 칭찬이 놉다고한다

安德元親睦會

【淸津】 청진부내에 산재한 함남(咸南) 안변, 덕원, 원산(安邊, 德源, 元山)인이 의사칠십명이상이 거주하나 친선을 도모하는 기관이 업슴을 유감으로생각하야 나려오든바 당지 유지제씨의 발기로 지난 십칠일 오후한시에 부내 덕흥려관에 회합하야 안덕원친목회(安德元親睦會)를 조직하고 널리회원을 모집하리라는바 당일 피선된 역원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會長 裵道先 副會長 金尙浩 庶務部 徐成杓 林右基 親睦部 朴允守 趙愼齋 會計部 崔德秀 監査 崔鋼擧 林昌佸 理事 金淵烔 金秉昤 李曾弼 金銀洙 南黨 黃瑞鉉 金錬洙

大邱名物藥令市

十二月十七日부터 府內南城町서開市

【大邱】 대구명물의 약령시(藥令市)는 십이월십칠일부터 래년이월까지 남성정(南城町)일대에서 개최한다는대 대구의 유수한건재업자들은 벌서부터 중국북조선방면에서 다량의약초(藥草)를 수이입(輸移入)하야 준비에분망중이라는대 전년도의 매상고가 오만 칠천륙백칠십사원이며 입일최고가 사만삼천 삼백원에달하엿다는대 금년도는 농촌의불경긔도 다소완화되여 작년도에 비하야 매상이증가 하리라고예상한다하며 남성정 일대의려관 음식점등은 대활긔를띄고 만단의 준비를다하고 잇다고한다

等級查定에말성 繩叺檢查員暴行

檢查마치러온사람을無數亂打 被害者側告訴提起

【韓山】 오직가마니(叺)검사원이라는 권세만밋고 향촌의 몽매한 가마니 생산자를 초개가티 역이고 구타를 자행한사실로인하야 고소를당한 검사원이잇다 충남 부여군 립포미곡검사출장소(扶餘郡笠浦米穀檢查出張所)에 근무하는 미곡검사원 김모(金某)는 지난십삼일 립포시장에서 부여군량화면 모리(良化面某里) 박모(朴某)의가마니를 검사하던중 검사등급의 관계로 피차힐난을 하든끗헤 검사원김모는수백명 생산자가 모인가운데에서 전긔 박모를 무수구타하야 일시는 대혼잡을 일우엇섯다는데 피해자인 박모는 억울함을 참다못하야 소관경찰에 상해죄로 고소를 제긔하엿다한다

智異山保勝會組織

南原咸陽兩郡聯合 兩郡有志四十餘名發起로

【南原】 지리산(智異山)개발문제로 지난십륙일 남원 함양(南原咸陽)량군에서 유지근사십명이 지리산입구인 마천면(馬川面)에 회합하야 남원군청리정근(邑長李正根)씨를 좌장으로 정하고 [illegible] 회합하엿다는데 당일 협의사항은 량군련합으로 지리산보승회(智異山保勝會)를 조직하기로하야 그본부를 남원에 두기로 되엿다는데 지금부터 천연적지리산도 차츰인공을 가하야 널리 세인의 발자취가 부절하도록 시설해이세워질 모양이라한다

遺族에三十圓同情

【永登浦】 지난 삼십일오후십일시경에 영등포역전 김귀선(金貴善)집 압헤서 문만수(文萬壽)라는 십팔세된 청년이 시오중점인부 박창문(朴昌文)(三七)에게 마저죽은뒤 유족들의생활방도가 막연하야 그가일하고잇든 호월식당(皓月食堂) 주인재등(齋藤)씨가 금오십원을 동정하엿는데마루보시영업소(細川)주임은 금삼십원을 피해자의유족에게보내다고한다

地方人事

▲金容駿君(本社新泰仁支局長)과 孫福順孃과의 結婚式을 今月十二日 午後二時 全南錦州邑門町七四番地 崔鄰來氏宅에서 擧行

▲柳觀錫(場川支局長)今月二十日午前十時 [illegible]에서 [illegible]

別冊附錄つき 主婦之友 十二月號 發賣

▲十二月號는 기어히나 왓습니다。附錄도 굉장히充實하야서다 大評判이다。發賣부부터 品切이 될듯하다고 書店에서걱정。못사시면 큰損失이니 다 팔이기前에 至今곳 求하여주시오。每號계속하야서愛讀하여주시는여러분께願합니다。

和服向き 洋服向き 防寒物の編方集

重宝な毛絲編物と新案の防寒衣類の仕立方を獨特の圖解式で發表した附錄

三四歲用의帽子附케ー푸

男の子や女の子を思ひのままに産んだ方法

兒孩는 天主가 주는것임으로 人間의 自由로되는것이 아니라고하나 여기에 依하면 男子나 女子나 마음대로 낫케된다 鈴木博士의 批判과 同時에 그實際方法을 發表한 사람들의 實驗報告에 發表한大讀物이다。

▲奥樣軍のカフェー祕密探檢記

▲番犬の飼ひ方と素人訓練法

▲手藝內職に成功した祕訣を公開

▲お正月を迎へる新家庭の用意画報

▲果物で美人になる化粧法の祕密

妊娠調節の實行は夫婦仲を破綻させないか?

妊娠調節을 實行한後의 떠올 悲慘한 結果들을 赤裸裸하게 發表하겟슴니다。누구나 꼭 一讀하시와 家庭의 幸福을 爲하야 考慮하여주시오。

▲新婚早々の花嫁さんの實習心得祕帖

▲百圓たらずの資本で食物商賣に成功の經驗

▲(村尾博士)婦人の肺病に一番よい療養法

▲冬の小兒病の上手な看護法

▲大賣出しで掘り出し物を買ふ法

▲子供を抱へて働く未亡人の生活善を聽く

腦溢血と高血壓がキット治る名灸の祕傳

レビューの人氣女王 水の江瀧子孃이特히 主婦之友의愛讀者들을 爲하야自敍傳畫報의主演을하여주엇다。西條八十先生의輕快한詩를添付하야發表한特輯大畫報

ターキー自敍傳畫報

▲長篇小說 あねいもと 片岡鐵兵

▲長篇小說 人妻椿 小島政二郎

▲婦人病を經濟的に治した素人療法

▲赤ちやん用と男女兒用の溫かい防寒物

▲婦人用と女學生用の溫かい防寒物

▲男子用と老人用の溫かい防寒物

▲和服用と洋服用の防寒小物類

▲蓮茶の上手な點て方と飮み方
▲大辻司郎さんの世界一周漫談
▲笑の王者古川綠波の初戀物語
▲贈答用のお人形二種の作り方
▲溫かい冬の寢卷の仕立方三種
▲家庭用の天ぷらの揚げ方祕傳
▲お惣菜向の大根と豆腐の料理
▲便利で經濟な新しい煖房器具

ハガキ一本でちりめんの訪問着が當る特別大懸賞が本號に發表されて大評判です

東京神田振替東京一八〇 主婦之友社 五十錢(送料六錢)

勞働市場巡禮 ⑨ (製材所篇)

제철맛난製材業

舊殼을脫出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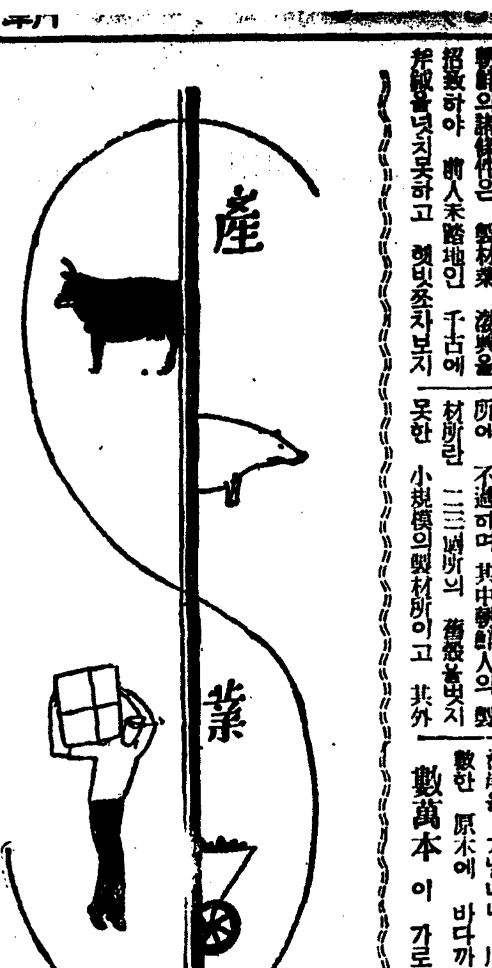
斯業에도朝鮮人의勢力은微微

元山支局…一記者

只今 朝鮮은 農業과 土木의 萬能時代를 出現하야 材木、鐵材、세멘트等이 需要되고 잇는 現狀이다 이러한 環境下에 잇는 材木商치고 利만히보고 어수룩한 장사가 업는것이며 더욱히 現代的 規模로 再編成한 製材業치고 躍進하고잇는것이 잇게 되엿다 그 躍進은 需要者의 激增을 前提로한 躍進인 同時에 保守的 諸條式을 克服한 大量生産을 할수 잇는 能力을 가진것이다 이러케 朝鮮의 諸條件은 製材業 勃興을 招致하야 前人未踏地인 千古에 斧鉞을 넷지 못하고 햇빗조차보지 못한 高山峻地의 密林地帶에서 독기와 톱소리가 요란히 들려나오게 하얏스며 이 製材業者의 龍兒가 되엇이 江原道와 咸北道의 密林地帶인것이다 이러한 北朝鮮의 資源을 全朝鮮에 配給하는 其販路網을 背景으로 成長하는 元山의 製材業은 逐日發展하야 年五、六十萬才의 製材를 하는데 이러케 적지안흔 製材를 하고잇는 元山의 製材所 를 보건대 六七個所에 不過하며 其中 朝鮮人의 製材所란 二三個所의 舊殼을 벗지 못한 小規模의 製材所이고 其外는 모다 日本內地人의 經營인것이다 就中 大村製材所는 每日 百三四十名의 勞働者를 使用하는 大製材所이며 其外에 藤尾와 藤岡도 各各 一二三十名 勞働者 를 常用하는 近代的으로 編成한 製材所들이다。

記者가 製材所人夫들의 製材方法과 그들의 勞働을 머리에 글이며 大村製材所 차저가기는 지난 七日午後零時十五分 立冬 추위를 알외우는 찬바람을 마즈며 大虹橋아래로부터 赤山에 沿岸을 거닐나니 川上에는 無數한 原木에 바다까지에 數萬本 이 가로누어잇서製材所가 需要할 [illegible] 두어름식될 크다란 原木이 우에 만히 더 잇슬뿐안이라 海岸附近一帶에까지 밋잇하고 크다란 原木이 山가리 차여잇섯다 이 우에 海岸地帶에 丸木이 바다우에 江의 잇다 이욱고 製材所에 到着하야

工場內 部를 드러다보니 製材所안은 죽은듯 고요한데 勞働者의 影子도 보이지안는다 이상히 생각하고 잇노라니 三十餘歲된 中年勞働者가 나잇는곳을 向하야 나오는것이다 記者는 닥자곳차로 그사람을 붓잡고 이 製材所內容을 打診코저하얏다 「웨한사람도 보이지안코 工場內 部가 이러케 적막한가요」 「지금은 點心時間이되야서 모다들 休憩하고잇스므로 모-든 機械가 돌지안코잇스니 고요하지요」 「미안합니다만은 이곳에서 일한지가 몃해나됩닛가?」 「한四五年됩니다」 「失禮입니다만은 지금 勞賃은 얼마나밧는가요?」 「네 얼마밧는가요 지금한 九十錢 밧는답니다。 이것가지고는 四五人家族을 먹여살릴수 업서요」 「이製材所에서 일하는 동무가 몃치나됩니까?」 「아마 百二十餘名가량되지요 자세히는몰읍니다마는」 「勞働은 어떤것인가요?」 「原木을가지고 原木을 잘라서 木을만드는것과 그것을 運搬하고 結束하며 치(寸)數에따라 板식을 잘으는것과 箱子와 其他를 만드는것입니다」 「삯전은 얼마가 最高이고 얼마가 最低입닛가?」 「잘몰으지만 最高가 一圓五六十錢이고 普通이 七八十錢 下가三十錢인가봅듸다」 「勞働은 몃時間이나합닛가?」 「아침일곱時부터 저녁다섯時까지지만 일이 밧부면 밤에도 하게되닛가 十四五時間하기가 例常事입니다 그러나 밤일을 하게되면 時間에따라 勞賃은 더밧습니다」 以上과가튼 이약이가 끗나자 말이에 맛처 汽笛이울며 [illegible] 時間이 끗나는모양이다 그에게 工場內部의 [illegible] 엇고 [illegible] 晝食時間까지 「스톱」되엿든 [illegible] 機械는 모-든 機械와 勞働者는 [illegible] 木材를 깍는소리가 [illegible] 製材所는 [illegible] 數十의 [illegible] 原木을 [illegible] 엄청나게 크고도 잇잇 [illegible] 製材하는 [illegible] 五六名 人夫가 사람군처럼 붓허잇는 [illegible] 鐵門을 닷처노흐면 內部에서 空氣가 바람가치 들어 [illegible] 數百尺되는 [illegible] 上空에 [illegible] 이러케 해서 어든 動力은 各所各處에 配給되어잇서 機械의 動力은 「스위치」 하나로 움직이게되엿다 (北靑通信)



産組의細胞로서 殖産契組織設置

近日中殖産契令施行規則公布

일今이 制定公布될본 殖産契令에對하야는 總督府內部에잇서 實施方針에對한意見이合致되지못하야 多少困難이잇든바 最近財務 殖産其他局의 協議를 거처서 忠南出張中의 西崎理財課長의 今朝歸任을기다려 殖産契施行規則을 審議室에廻付 審議中인바 數日內로 審議를終了 公布를볼모양이리라고한다。 以上 公布를 보는날이면 産業組合中央部를 金融組合聯合會內에 事業部라는 形式으로 設置하고 産組의 細胞組織으로各地에 殖産契組織을 着手하게되리라고한다

柑橘類輸出의 取締令公布

不正輸出者를取締

柑橘類의 海外輸出에 際하야朝鮮의 法規가 不備함으로 輸出配當을 깨트리는 不正業者가 恣用하게되어 朝鮮經由輸出이 相當한 數量에達하야 압서 이에 對하야 日本內地商工、農林兩省으로부터 取締를 朝鮮에要求하고잇든바 總督府에서도 柑橘類의 生産은 朝鮮內에 거이업고 問題의 北米柑橘輸出紛糾도 잇슴으로 取締案도 講究하고잇든바 近近府令으로 柑橘類輸出取締規則을 公布하기로되엇다

北朝鮮經由의 特定運賃貨物移動

【咸興】去十月中에 北朝鮮을經由하야 北滿消江驛에 到着한 特定運賃貨物의 總數量은 約千六百噸에 達하는데 이것을 九月中의 千四百瓩에 比하야보면 一割五分의 增加이며 今年四月以降에 到着한 貨物數量의 最高를 占하고잇나는바 其中에는 食料雜貨를 비롯하야 品名別로 表示하면 다음과가트다 (單位=瓩)

品名	數量
鐵及製品	三、二
砂器	三九〇、〇
綿布	四三、六
食料罐詰類	四、七
鹽魚	三一、五
鮮魚	一九、七
生果	一九、五
和酒、麥酒	一九七、五
綠茶	〇、八
生野菜	一六四、〇
木製家具	〇、二
古新聞	一八、〇
漆器	〇、六
綿	一、七
其他	五、二
合計	九〇〇、三

琺瑯鐵器의 同業組合組織

當局에認可를申請

九年十二月 朝鮮琺瑯器輸出組合을 組織한 琺瑯鐵器業者는同業進展에 作하야 重要物産同業組合法에依한 同業組合을 組織하려고 十四日付 組合設置를道經由로 申請하야 왓다 殖産局에서는 同業의 重要性에鑑하야 認可할 意向인데 現在朝鮮內 製造業者는 合計六社 年産三萬五千圓 百萬圓인바 組合事業으로 共同倉庫 共同購入 原料製造 輸出檢査를行할意向이다

北滿同胞巡訪記 ⑦

哈爾濱支局 一記者

滿洲北部國境인 大黑河今昔雜觀

人爲의線、이것이國境

蘇滿國境인 黑河에서 몃칠동안을 지낸나는 二十八日아츰五時二十分에 北安鎭으로 나오는車에 몸을 실엇다 눈에익은自然에 神秘를 늣기면서 窓밧글내다보는사이에 車는 어느듯變噸驛을 지나서 길게노힌 老靑屯部落에다달으니 이곳저곳에는우리 同胞들이 눈에 띄이며 힌옷입은 아해들과 婦人네가 달려가는 汽車를물끄럼이 바라보고 잇다 이老靑屯에 잇는 同胞 들은 大槪가 日韓合倂때에 沿海州方面에 건너갓다가帝政露西亞의 革命當時에 건너온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約六十餘戶가 살고잇스나 그들은 故土를 등진지도 벌서 二十五個年이나되는 長久한 歲月로보아 朝鮮이란말이 예기픈印象도 남어잇지 안흐려니와 더욱히 젊으니로는 「조선」이란 한글한字도 쓰지 못하는 反面에 生活 意識조차 달나졋다고한다

이러는동안 나는 어느듯興安嶺을 넘어섯다 無邊曠野의 넓은들에는 黃金色 저녁빛이 숨속에 사라지고잇다 나는 이날 밤 北安鎭에 와서 勞助會幹部들맛나 露先哈爾濱의消息을듯고 이튼날 午前十時十六分에 海安鎭에나려 善牧農場을 찻기로 하엿다 海北鎭은 戶數五千餘에 우리同胞二百戶가 살고잇는곳인데

過去 와 現在를 莫論하고 이곳은 天主敎(카톨릭敎)가 그主體가되야 全般的權利行事를 하여왓스며 敎徒들도 滿洲人六千名에 同胞信者四百名을 合하야 一萬名假量이나 된다고한다 그런데 여긔에 善牧農場이 開墾되게된 動機를 들으면 滿洲人神父張方濟氏가 北滿에散在하야잇는 同胞信徒들의 經濟的適宜結合과 農民의 生活安定을期한다하야 昭和四年度에 農場施設費一萬圓으로

農場 을 施設 하고 이것을 鄭麟守氏가 管理하고 잇는바當年으로 同胞農戶 五十五戶에人口 百五十一名을 收容하야 百二十町을 耕作하얏든것이 不意年分에 凶作을 當하야서 一晌平均三石으로 合計 三百六十石밧게收穫되지안햇는데 여긔에서 몰年分의種子로 百石을 내여노코는 殘高二百六十石을 全部徵收하야 一石當十五圓計算으로 總額三千九百圓을 當年支貸에서

貸付 한 農資金 一萬三千五百二十七圓七十八錢과 天主를信奉하는 信仰者들의 生活安定을 期한다는 美名下에 投資하여온 一萬圓까지 徵收하야 農民에게 반갑지안흔 罪업는 一萬圓은 무거운짐이되엿든것이다 이들이 滿洲異域에까지 흘러오기에는 波瀾도 만헛고 曲折도重疊하엿스려니와 든저오는

嚴冬 과닥쳐에는 엇더케무엇으로 生을持續하여온것인가 두견대 張神父는 이救濟目的으로 冬期임에도 不拘하고 木材業을 開始하야 農場民全體를 여긔에 從事시켜 糊口의策을 講究하야 왓다하나 北國의겨울 어롤찬바람에서 衣食에주러가며 終日토록 움직이지안흐면 안되엇슬그들의情景을 다시생각하니 눈앞이 피감감해진다 이들은 이거츠른

荒野 에서 이러케 까지 삶을 걸마하며 無限히 애써왓스나 希望의 빗츤 아직도 보여지지안는터에 昭和七年六月六日밤에는 馬占山의 殘兵數千餘名이 海北鎭一帶를 包圍하야 掠奪、放火、射殺等으로 數千滿民의아우성소리와 銃소리가 大地를흔들고잇슬때 同胞農民들은海倫으로 避難을가던途中 諸家江畔에서 無慘히도 十八名同胞가 一時에

虐殺 當한것이 아직 그치 남어잇다고한다 現在 이 農場에는 우리農戶는 百五十戶에 人口七〇〇名이 살고잇스며 今年度作付面積六〇〇晌에서는 每晌十五石式 九千石이 收穫되리라는 豫想인데 여긔에서 小作料와 農場管理費等으로 每晌四石과 今年度農資貸付金 二萬一千五百圓가량을 支拂한 남어지는 農民의 收入이되나 昨年凶作에 진

舊債 를 淸算하게되면 남게되는것은 빼맷진手荷와 북데기 단바게업슬것이다 農場管理者側에서는 오래前부터 自作農을 創設한다고하나 年來로 나려오는 農資貸付金에 비최여 보면 너머나 그距離가 멀다 其中에서 몃사람은 農地를 買收하야 半自作農을 하고잇스나 그들은 大槪가 農場의

役員 으로써 年四、五十石의收入이잇는 特定된 사람에게 만局限되고잇다 나는 以上의 複雜한 觀察을 그만두고 여긔에 敎育機關으로 民會에서 經營하는 海北鎭普通學校와 農場民들의 經營하는 善牧普通學校의 就學狀況을 보려 하엿스나 마침日曜日인탓으로 다 시못갓을 도리켜

海倫 으로가는길 五時二十分에 車에올으니 鐵道沿線諸家江畔에는 同胞들이 虐殺된 자리에 木標한個가 남어잇다

躍進新昌港의 鰤魚大豊獲

漁獲高三萬二千餘桶

【新昌】躍進 咸南新昌港은 鰮魚를 비롯하야 鰤魚、雜魚、明太魚에 이르기까지 四季를通하야 依然 繼續的 豊漁를 나타내어 大活氣를 보하고 잇다함은 累報한바어니와 新昌港의 今年度鰤魚漁獲高는 數年來의 新記錄을 示現하엿다는데 十一月十八日까지의 鰤魚漁獲高는 漁獲期一個月間에 約三萬二千餘桶 每桶七十五錢平均으로 換算하여 三萬六千五百圓에 達한다고 한다

十月中郵便局所 郵便振替貯金額

全朝鮮 郵便局所에서 取扱한十月中 郵便振替貯金의 受拂總度數는 三十五萬五千九十六度 總金額 七千百四十萬七千七百四十五圓인바 그內容은 受入度數二十七萬二千八百五十六度 金額三千五百八十七萬八十七圓이오 拂渡度數는 八萬二千二百四十度金額三千五百五十三萬六千八百七十八圓 또十年末現在의 加入者總數는 三萬一千八百二十四人 그 預金額五百七十萬一千七十四圓이라한다

迎日郡棉出廻良好

【浦項】慶北迎日郡內의 今年棉作은 天候順調로 大豊作을 일우엇는데 品質도 매우優良하다하며 出廻數量은 十一月十二日까지 十四萬斤에 達하얏다는데 昨年度共販市場에 出廻된 總斤數十四萬斤에比하야 今年度 出廻豫想은 二十萬斤을 突破하리라고하며 品質에잇서서도 出廻數量의 九割九分이 一等品이라하며 그價額은 二萬四千餘圓이나될으로 一般農家의 經濟力을 多少潤滑케하리라고한다

朝鮮窒素서 硫安增産

日産一千五百噸

朝鮮窒素의 興南工場은 長津江水電의 試驗發電成績이 자못良好하야 豫定의 三萬五千킬로以上을 發電하고잇스며 또從來長津江水電 工事用에 使用하든電力 二千五百킬로가 不必要하게되엇슴으로 過剩電力의 餘裕를生하게되어 一方興南工場의 主要製品인 硫安이 四圓六、七十錢의 高價로 昂騰하고잇다 此際 今後右過剩電力을 全部硫安製造에 使用하게될모양으로 벌서 硫安의增産을實行中이라한다 即 現在의 硫安 日産能力은 一千三百噸乃至 一千五百噸임에對하야 이것은 硫酸安 硫加燐安을合한 能力이어서 今年의 夏期日産能力이 六百噸가량이든데 比하면 約倍加되기가어렵지안타 그러고 日産 一千五百噸이되면 年産은 約五十二萬噸에達함으로 肥料價에 影響이잇스리라고 期待된다한다

水産罐詰業 市況이不振

價格에影響을豫想

水産罐詰業은 昨九年度 大飛躍을 試하야 蟹罐、토마토、씨! 등이 모다 新規로 南洋、近東에 販路를 開拓하얏는데 今年에 入하야서는 市況이 不振하야 目下 水産組合에서는 罐詰의 賣込折衝을 繼續하고잇는데 이도 不美한 狀況에잇서 모다 今年의 罐詰業에는 價格方面으로 昨年과 如한 順調를 示할수업다고보인다

總工産額 四億四千萬圓

九年中 朝鮮內官營工場 生産額은 合計四千七百七萬一千九百八十一圓에 達하야 旣報의 民營工場 生産三億九千五百九十七萬六千三百五十一圓을 合하면朝鮮總工産高는 合計四億四千三百四萬八千三百三十二圓에 達하는바 最近五個年間의總工産을 比較하여보면 (單位千圓)

昭和五年	二八〇、九六三
六年	二五二、九二四
七年	三一〇、八三六
八年	三六七、二三五
九年	四四三、〇四八

으로 前年에比하야 七千五百八十一萬三千圓의增加이다

朝鮮의馬政은 耐寒性을考慮

朝鮮馬産計劃은 十月 日本內地에서 開催된 馬政委員會에서可決되어 十一年度부터 實施에入하기로 決定하얏슴으로 矢島農林局長 油井技師는 朝鮮軍司令部와 이馬産의 細目에對하야協議를 進行하고잇다 軍의 希望은 國策으로 耐寒性의 馬를 常置할 必要가잇스니 右國策에 併行식히기바란다 고함으로 農林局에서는 이希望과 朝鮮內의 馬政을 考慮하야

朝鮮産"콜크"輸移出進展

相當히將來性을期待

江原道의 구로참나무를 原料로하는 콜크工業은 永登浦에 朝鮮콜크 釜山에 昭和콜크의二社가 新設되어 新興産業으로 注目되고잇는바 이는最近輸移出用으로 相當히出荷되어 九月末現在 輸出額 一四、四八七圓 移出額 八八、九一六 으로 合計十萬圓에達하고 特히輸出用에는 中國方面에의 需要가잇서 相當한將來性을 期待하고잇다

朝陽紡績設立決定

江華島의 朝鮮人有力者로 設立計劃中의 朝陽紡績會社는 資本金 五千萬圓으로서 創立키로決定되바 그工場은 江華島邑內에 建設하고 動力은 京電으로부터 供給하기로 되엇다한다

原皮鐵材等暴騰

【平壤】伊에戰爭으로 因하야그 影響이 平壤에도 미치고잇스니 洋靴만드는 原皮와 그付屬品이 一割乃至二割이나 놉하저서 洋靴店에서는悲鳴을올리고잇스며各種鐵材도 騰貴되야 建築事業과 其他에도 큰影響이 밋치고잇다 한다

質疑

重復質問말고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確하게

問 『專賣の朝鮮』販賣店을 下敎하시옵소서 (平北龍川李生)

答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에서發賣합니다

問 養鷄用 鐵販網賣店을 下敎하시옵소서(尙州郡■■西道 安里全炳郁)

答 京城府南大門通 二丁目 直金網店입니다

水稻採種畓成績

採種量二十萬八千石 補助額二十四萬餘圓

昭和九年 水稻採種畓補助는 第二次採種畓으로서 道費補助한分이 日本內地系優良品種 九萬六千八百九十九圓 在來系優良種 一千九百三十四圓 計 九萬八千八百三十三圓에對하야 七千二百八十三町步로 豫定面積보다 一町減 採種量은 二十萬八千七百七十七石으로 豫定收量보다 五千九百八十六石의增收 更新面積은 四十九萬五千三百七町步로 豫定面積보다 一萬三千四百七十四町減 即이것은 慶南北의 水電과 咸北의天候不順이 主因이라한다 그러고 道費採種畓經費 總支出額은 二十四萬五千九百七十七圓으로 豫定보다 五千五百六十五圓의 減少를 보앗스며 또 國庫補助를 除外한 總道費支出은 十四萬七千八十四圓이라 한다

韓山農産物品評會

忠南韓山金融組合에서는 農村振興施設의 一端으로서 지난九日부터 十一日까지 三日間同組合內에서 農産物品評會를 開催하엿든바 農産物의 出品件數가 六百餘點에 達하며 四十三名의入賞 授與式이잇서 盛況裡에 閉會하얏다 한다

朝鮮輸出電球 檢査不完全타고

檢査員派遣을提案

朝鮮의 輸出電球問題에 對하야 今秋九月 商工省 及 當業代表者가 渡來하야 對英輸出에 關한 配給協定을 行하얏는데 그 後 日本內地에서는 朝鮮의 出荷檢査가 日本産品의 聲價를 毁損하야 조치못함으로 이지음 拓務省을 通하야 日本電球工業組合聯合會로부터 輸出檢査에 關한 檢査員을 朝鮮에 派遣하야 製品檢査를 勵行하고십다는旨 提案하야왓다 商工課에서는 이諸否에對하야目下 愼重考慮中이다

人絹染色이 非常히勃興

人絹織物의海外進出期待

人絹、絹織 並 染色加工의 勃興은 最近 顯著하야 京城郊外及 釜山近郊는 一中心地가 되어잇는데 釜山의 躍進은 特히 顯著하야 昭和九年初에는 僅僅 釜山織物工場一社에 不過하든것이 爾來今年十月까지에 다음의 四社가 新設되엇다

丸新織物工場 九年五月創立
朝鮮紡織人絹 十年七月同
高麗合名製織 十年八月同
丸加工業會社 十年九月同

그리고 이는 紡織及 染色設備로 朝鮮內需要에 勿論이고 모다 海外進出에 着眼하고잇슴으로 人絹織物의 海外進出도 今年以降 相當히 激增하리라고 期待된다

小野田洋灰增産

朝鮮小野田社의 今年度 洋灰生産은 四十萬噸으로 朝鮮內消費는 三十萬噸 其他 十萬噸은全部日本內地市場으로 移出되며來年度부터는 勝湖里 川內里兩工場이 全操業을 開始하는것과 九月後는 古茂山工場도 새로操業을 開始함으로 今年以上의 增産을보리라하며 日本內地及 滿洲에 輸移出하야 그緩和를 圖하리라고한다

▲세멘트販賣戰不熄

【東京電話同盟】鐵道省에서는同省所用의 세멘트 百二十萬俵를 最近 세멘트 聯合會와 小野田의 雙方에 發註하얏든데 第一回를 除하고 二回三回 모다 小野田은 聯合會側의 作戰이 奏効하야 손을 대이지못하얏슴으로 今回는 꽉 右 敗買의 大部分을 獲得하려하고잇다 特히 最近聯合會對小野田側의 妥協工作은全然 中止되여 聯合會가 朝鮮에 對한 出荷를 採用하면 小野田은 日本內地에 工場을 新設하고 對抗할 氣勢으로 兩者最近의 對立關係는 今回의 鐵道省의 發註에 對하야서도 如實히 反映할것으로 그 推移는注目되고잇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三四四	金銀鑛	平北楚山郡南面城西面渭原郡密時面	十月二十五日	京城府南大門通 早川茂市
一三三四五	金硫化鐵鑛	黃海金川郡月城面	同	同北米倉町 代表者 河村國太郎 同靑葉町 中川寅一郎
一三三四六	金銀鑛	平北[illegible]郡[illegible]面	同	朔州郡朔州面 代表者 李鵬健 新義州府初音町 金東完
一三三四七	金銀鑛	慶南山淸郡生比良面	十月二十六日	咸陽郡所下面 梁址煥
一三三四八	金銀鉛鑛	咸南定平郡長原面	同	京城府昌信洞 代表者 方泰鵬 定平郡長原面 李基英
一三三四九	金銀鑛	黃海松禾郡蓬萊面長陽面	同	京城府吉野町 岩月善六
一三三五〇	同	咸南永興郡耀德面	同	同光化門通 代表者 康益夏 永興郡耀德面 閔昌植
一三三五一	同	江原原州郡貴來面 忠北堤川郡白雲面	同	京城府[illegible]洞 代表者 金道鏞 同苑洞 尹秉鉉
一三三五二	砂金	慶南山淸郡山淸面	同	居昌郡居昌面 代表者 金成昌 同 崔永勳 晋州郡晋州邑 李鳳善
一三三五三	金銀鑛	慶北盈德郡盈德面知品面	十月二十六日	盈德郡盈德面 代表者 文明琦 永川郡永川面 金基宅
一三三五四	同	忠北永同郡黃金面梅谷面 慶北金泉郡鳳山面	同二十八日	大邱府南山町 代表者 金炫坤 金泉郡牙浦面 金鶴培
一三三五五	同	京畿廣州郡中垈面九川面、西部面	同	平康郡高揷面 代表者 白璟煥 廣州郡九川面 李重習
一三三五六	黑鉛	全南和順郡寒泉面	同	論山郡論山面 李德善
一三三五七	鐵石	咸南北靑郡泥谷面	同二十九日	大阪市西區 中村彌助
一三三五八	金銀鑛	同豊山郡安山面	同	安邊郡衛益面 代表者 李容愼 東京市赤坂區 龍三鑛業合資會社
一三三五九	同	江原高城郡新北面	十月卅日	京城府水下町 代表者 金鍾完 同黃金町 俞元穆
一三三六〇	同	慶北奉化郡法田面春陽面	十一月二日	奉化郡法田面 河龍舟
一三三六一	金銀鉛鑛	咸北富寧郡三海面	同	淸津府[illegible]町 代表者 藤山勘一 同浦項洞 羅栗祿
一三三六二	金銀鑛	京畿利川郡栢沙面	同	京城府本町 山本いく
一三三六三	金鑛	平北熙川郡新豊面	同	同南大門通 大森宗二
一三三六四	金銀鑛	同	同	
一三三六五	同	江原洪川郡瑞石面	同	同禮智洞 李璟夏
一三三六六	同	忠南瑞山郡海美面	同	洪城郡高道面 代表者 趙斗元 金基暎
一三三六七	同	同大德郡山內面 全北錦山郡秋富面	同四日	大田府本町 田谷泰子
一三三八七	金銀鑛	全南長城郡南面	十一月二日	光州府明治町 崔南周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一九六九	黃海安岳郡安谷面	十月二十五日	大阪市西區松島町 岡崎重之
一一〇〇五	慶南南海郡南海面	同二十六日	統營郡統營邑 金敏圭
一二一三一	同昌善面	同	同良梁里代表者 金敏圭 南海郡南海面 安達守
四五三七	黃海鳳山郡洞仙面文井面	十月二十八日	福岡縣戶畑市 明治鑛業株式會社
五二六一	同土城面、洞化面	同	同
五二六二	同文井面、沙里院邑	同	同
五二七四	同文井面、洞仙面沙里院邑	同	同
五五三六	同文井面	同	同
六九四九	同楚臥面	同	同
七〇一五	同	同	同
八〇五三	同遂安郡道所面 平南成川郡三興面	同	京都市左京區 草場茂一
一一四九六	忠南天安郡成歡面	同廿九日	天安郡成歡面 金大龍
九〇七三	江原金化郡遠北面	同	山口縣宇部市 沖ノ山炭鑛株式會社 代表者 東京市麴町區 日本鑛業株式會社
九五一二	同岐楷面、遠北面	同	同
九二二八	咸南文川郡雲林面	同	東京市澁谷區 代表者 木村久太郎 元山府旭町 松田源三郎 佐藤千代藏
一〇六〇九	同	同	同
七三二一	慶南河東郡玉宗面	十月卅日	河東郡玉宗面 代表者 井上茂吉 福岡縣小倉市 東洋陶器株式會社
七三二二	同北川面、玉宗面 晋川郡昆明面	同	同
七三二六	同北川面	同	同
七九六九	同玉宗面	同	同
一二〇七七	同	同	福岡縣小倉市 東洋陶器株式會社
八八二三	江原華川郡北山面	同	京城府[illegible] 代表者 金[illegible]
一〇五九一	同洪川郡乃村面	同	平壤府倉田里 [illegible] 石原勝市
九七六五	咸南釜山郡安水面	同月一日	京城府[illegible]町 代表者 中田一郞 同明治町 田中直天郞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四九一	平北朔州郡外南面	十月二十五日	廢業
九〇二二	慶北盈德郡蒼水面寧海面	十月三十一日	廢業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二一五七	忠北鎭川郡栢谷面	十月廿四日	沈相德任意脫退
一二三〇二	同槐山郡淸安面	同	吳莊根任意脫退
一二〇六三	忠北永同郡龍山面	十月二十九日	金子利八死亡脫退
九二五〇	忠南公州郡木洞面灘川面	十月三十一日	坂本俊吉任意脫退
同	同	同	小野元太任意脫退
同	同	同	戶倉俊一任意脫退
同	同	同	池本延三郞任意脫退
同	同	同	田村半助任意脫退
一〇三四七	江原高城郡水洞面西面	同	崔瀚植任意脫退
八八二三	同春川郡北山面	同	兪致秀任意脫退
一二三九七	咸南長津郡上南面	同	李亨淳任意脫退
同	同	同	嚴興洙任意脫退
同	同	同	崔鴻國任意脫退
同	同	同	文錫周任意脫退
同	同	同	鄭錫周任意脫退
同	同	同	金亨濟任意脫退
同	同	同	安昌濂任意脫退
八八二三	江原春川郡北山面	十一月二日	金京守任意脫退
九八〇五	同洪川郡洪川面	同	朴順女任意脫退

火賊 林巨正 (224)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五의卌四

둥둥둥 북소리가 낫다 마당이나 마루나 다가리 조용하얏다 무식한 신불출이는 도록책을 펼처들고 글짜아는 곽오동이는 성명을불럿다

『이오종이』

『네 등대하얏소』

압산 파수군패두 이오종이가 청긔뒤에서 나와서 현신하고 홍긔아래에 가서섯다

『김몽돌이』

『네 등대하얏소』

『최오쟁이』

『네 여긔 왓습니다』

『안되살이』

『네 등대하얏소』

『덩명돌이』

『네 등대하얏소』

『박씨종이』

『신복동이』

『네 왓습니다』

『구봉득이』

『네 왓습니다』

『장귀천이』

『장귀천이』

장귀천이는 귀가 먹어서 못알어듯고 가만이 섯는것을 여메졸개가 눈짓 입짓으로 가르처주어서

『네 네』

변겁허 대답하며 뛰어나왓다

『김억석이』

전에 뒤산파수군패두이든 김억석이가 아직까지 다시오지아니한것은 다들 잘아는까닭에 곽오동이가 세번까지 불르지안코 다음에적힌 성명을 불럿다 졸개가 하나 하나 변해 하나씩 청긔에서 홍긔로 건너가서 청긔홍긔의 사람수효가 거의 반반쯤 되엇슬때 꺽정이가 성을 빼고 일홈만 얼른얼른불르라고 분부를 나렷다

『회선이』

『네』

『중선이』

『네』

『산봉이 산봉이 산봉이』

『백만이 백만이 백만이』

『차동이』

『네』

『쇠똥이』

『네』

『수동이』

강수동이 차수동이 수동이란 이 쌍대답하얏다

『강득이』

『네』

『몽득이』

『네』

『서노미』

노미가 서노미 허노미 이노미 셋이나 되어서 얼핏 섯까지 껴서 불르는데 허노미는 제가 불린줄 알고 서노미보담도 압질러 대답하얏다가 다시 서노미 불르는것을 듯고 뒤통수를 긁젓다 얼굴을 붉힌 이것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고 입들을 악물엇다 홍긔쪽에잇는황두령은 가만히 한군데 섯고만히 떤데를 보는 까닭에 졸개들이 소근소근 짓거리기도하고 가만가만 웃기도하지만 청긔쪽에잇는 김두령은 엇던놈이 혹시 웃나 짓거리나 하고 큰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어실렁어실렁 돌아다니는까닭에 졸개들이 끽소리도못하얏다 허노미와 이노미 다 불린뒤에 개동쇠와 자근쇠가불리고 그다음에 덜렁쇠가 불리엇다 덜렁쇠는 일홈과가티 사람도 덜렁이라 네 대답 나고 곳 쏘살로 홍긔쪽으로 건너갓다가 두목에게 볼치맛고 다시나와서 현신하고 들어갓다 변하야 불리는 일홈중에 조이、쌀이、녹이、복이、동이 남이가튼 외자일홈이 만코 삼실개미치、자름개동이가튼 다섯자일홈도 홋잇고 핑노、양필、맹효가튼 점잔흔 관명도 더러잇지만 강아지、도야지、부엉개、마당개 쥐불이、말불이、쇠미치、밀미치가튼 천한 아명이 만하얏다 청긔아래 두목과 졸개가 하나도 남지아니한뒤에도 도독에적힌성명은 두서넛 더잇섯스나 곽오동이가 불르지안코 안표를 질렷다 해가 느진아침때가 지난뒤에 점고가 끗이 낫다 북소리가 둥둥둥 나며 홍긔아래는 외쪽자리하야다 도회청적이 소일홈가진 아이들만 남아잇고 그외는 다들 가라고 꺽정이가 령을 나려서 두목졸개 백여명은 모다 북쪽에 허터저가다